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

어린이 · 청소년 도서관 세미나 서비스

발 표 자 료 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

일시 | 2020. 09. 22. (화) 13:00-16:30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

어린이 ·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서미나

발 표 자 료 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

일시 | 2020. 09. 22. (화) 13:00-16:30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

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세미나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사회자: 이미화(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13:00-13:10	10'	개회	인사말 서혜란(국립중앙도서관장)
13:10-14:00	50'	기초 발표	발표1 포스트 코로나, 도서관의 미래 준비: 고객은 누구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경상(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14:00-14:30	30'	주제 발표	발표2 (영상) 코로나-19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에 미친 영향: 국제적인 관점에서 마리엔느 마튼즈(미국 켄트주립대학교정보학 교수 / IFLA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분과 상임위원) How Covid-19 has Impacted Library Servic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Marianne Martens, Ph.D.(Associate Professor, Kent State University's School of Information / Secretary, IFLA's Section on Libraries for Children & Young Adults)
14:30-14:50	20'	휴식	
14:50-15:40	50'	주제 발표	발표3 비대면 시대,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은 임여주(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5:40-16:00	20'	사례 발표	발표4 SNS를 활용한 비대면 독서프로그램 운영 사례 이용운(도봉문화정보도서관 사서)
16:00-16:20	20'		발표5 비대면의 시대, 움직이는 도서관: 도서관 영상으로 만나다 허지현(부평구립부개도서관 사서)
16:20-16:30	10'	폐회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을 맞아,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서관계의 어린이·청소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직접 참석하여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되어 무척 아쉽습니다.

1945년 10월 15일에 개관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올해로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소공동에서 남산, 그리고 1988년 지금의 반포동으로 이전하면서 2006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9년 디지털도서관, 2013년 국립세종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창조적 지식문화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걸어온 길에는 도서관을 지키고 가꾸는 데 앞장서 오신 도서관계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에서도 예외일 수 없지요. 지금까지 도서관은 사서와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가 만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을 해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의 새로운 방향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0년 4월,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ction)에서는 특별 뉴스레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폐쇄기간 동안 도서관에서는 어떤 새롭고 창의적인 어린이·청소년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각 국의 다양한 사례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를 주제로, 전 세계 도서관계에서 이어지는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도서관이 다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활짝 문이 열릴 그 날을 기대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기조발표 / 발표1

- 포스트 코로나, 도서관의 미래 준비: 고객은 누구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1
이경상(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 발표2

- 코로나-19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에 미친 영향: 국제적인 관점에서 27
마리엔느 마튼즈(미국 켄트주립대학교 정보학 교수 / IFLA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분과 상임위원)

How Covid-19 has Impacted Library Servic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Marianne Martens, Ph.D.(Associate Professor, Kent State University's School of
Information / Secretary, IFLA's Section on Libraries for Children & Young Adults)

주제발표 / 발표3

- 비대면 시대,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은 57
임여주(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사례발표 / 발표4

- SNS를 활용한 비대면 독서프로그램 운영 사례 71
이용운(도봉문화정보도서관 사서)

사례발표 / 발표5

- 비대면의 시대, 움직이는 도서관: 도서관 영상으로 만나다 83
허지현(부평구립부개도서관 사서)



기조발표 / 발표1

포스트 코로나, 도서관의 미래 준비: 고객은 누구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

이경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Post Corona, 도서관의 미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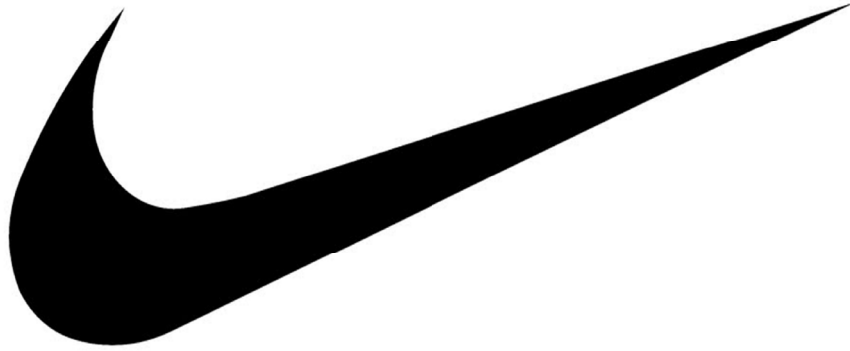
고객은 누구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KAIST 이경상 교수 godo@kaist.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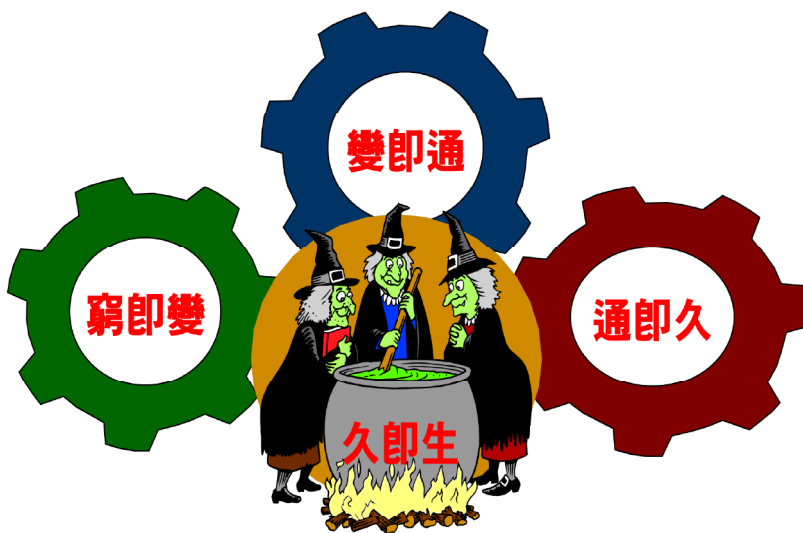


Beyond Corona, 3대 미래 변화와 대응

- #1 코로나19,
위협은 새로운 변화를 촉발한다!
- #2 4차산업혁명,
디지털 서비스 변혁이 일어난다!
- #3 도서관,
미래 고객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周易: **위협**이 **변화**를 만든다.



미래 1 원격 가상 협업능력과 소통의 능력이 요구!

고밀도 집적형 작업터는 한번에 위험을 가지고 온다!

콜센터

코워킹
센터

화이트
칼라
오피스

정부
종합
청사



미래 2 인공지능 기반 Call Center가 증대된다!

사용자 감정을 인지하고 상호작용

동료 인간과 연결할 때 정보를 제공

정보를 조사하여 추가 제공

The World's First
Marketplace for
Digital Employees™

DIGITAL Workforce.ai
by Amelia

50 여 개
글로벌기업
고객응대

40여 개
언어 구사

93% 정확도
학습으로
진화

<출처: 아멜리아 홈페이지>

미래 3 5세대 소셜미디어로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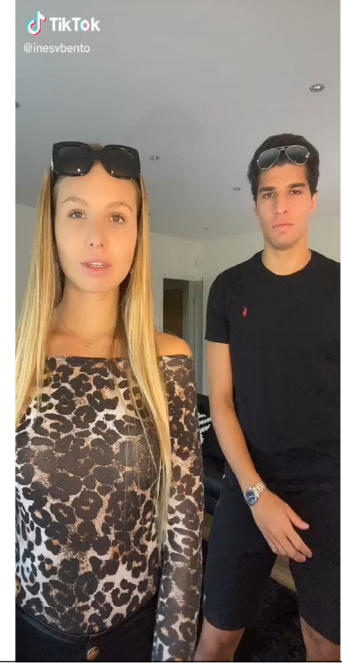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이 원격 소통력이 증대되었다!





“어디에 있니?” => “어떻게 지내니?”



4차 산업혁명 After Coro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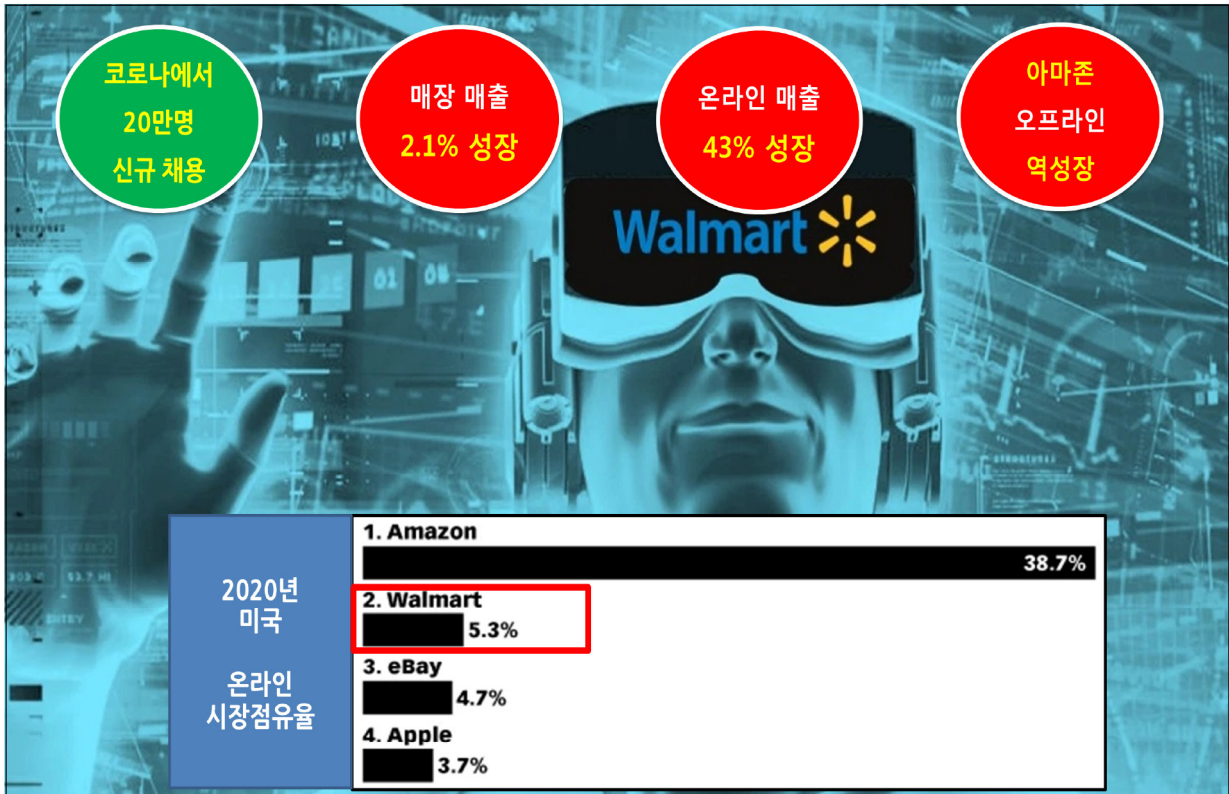


998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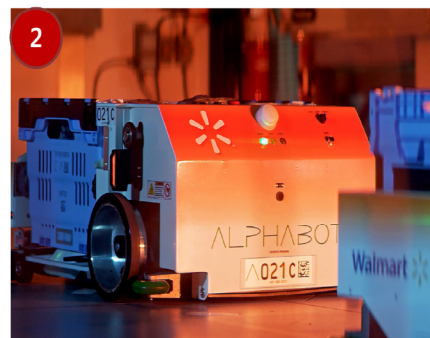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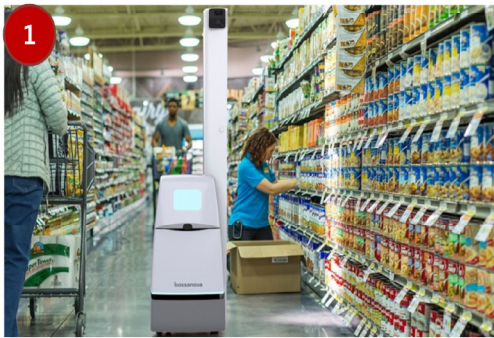
미래 4 "오프+온+AI"의 새로운 커머스가 등장한다!



당신 매출의 30%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월마트의 재고관리-물류-배송의 Digit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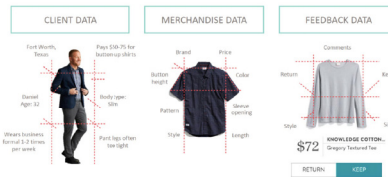
2. 'Just-for-You' 서비스로 무장된다!

고객의 개인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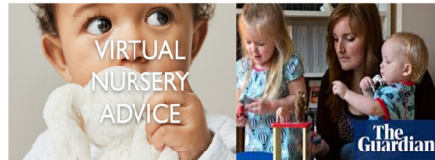
고객 시와 연결

고객 개인의 변화하는 취향을 분석하라!



고객의 변화를 학습

고객 삶의 숨겨진 데이터를 활용하라!



고객의 고객을 지원

3차와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다른가?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자동화 시대
(Automation)

자율화 시대
(Aut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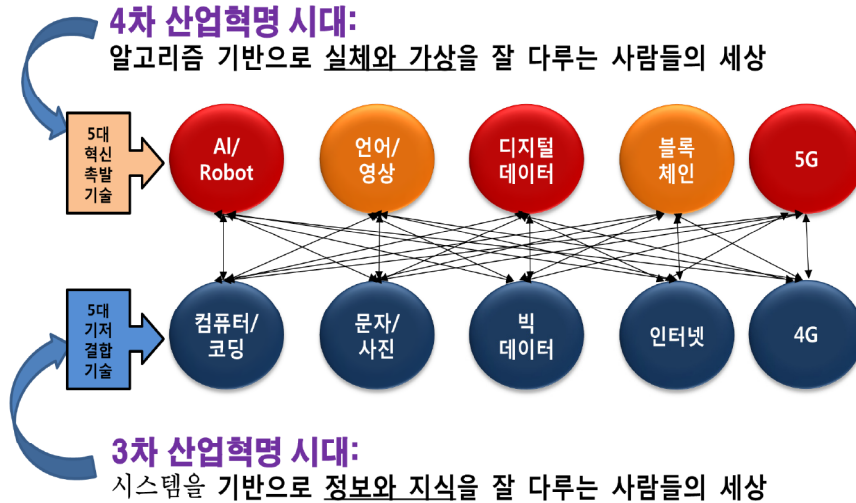
정보화 시대
(Informatization)

디지털화 시대
(Digit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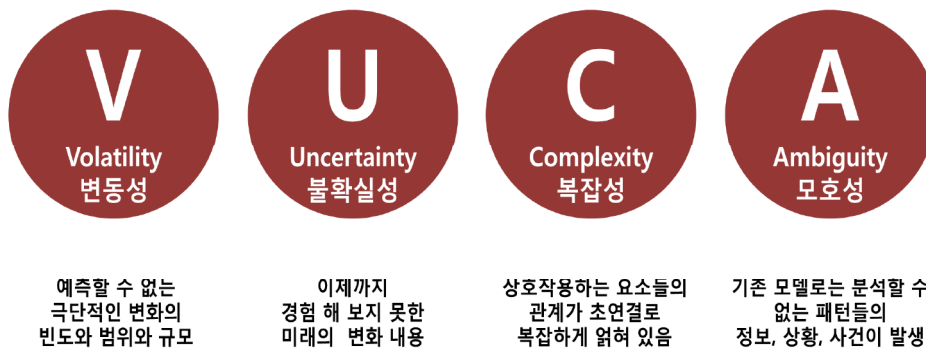
정보 기술 (IT)

디지털 기술 (DT)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차이



미래 세계 경제 키워드: VUCA, 맥킨지 컨설팅



코로나19 + 4차 산업혁명 = VUCA 경제

인공지능은 인간 뇌의 복제품



인간의 뇌



學

원리



習

지도학습
자율학습



覺

실행과 배움



AI의 신경망



알고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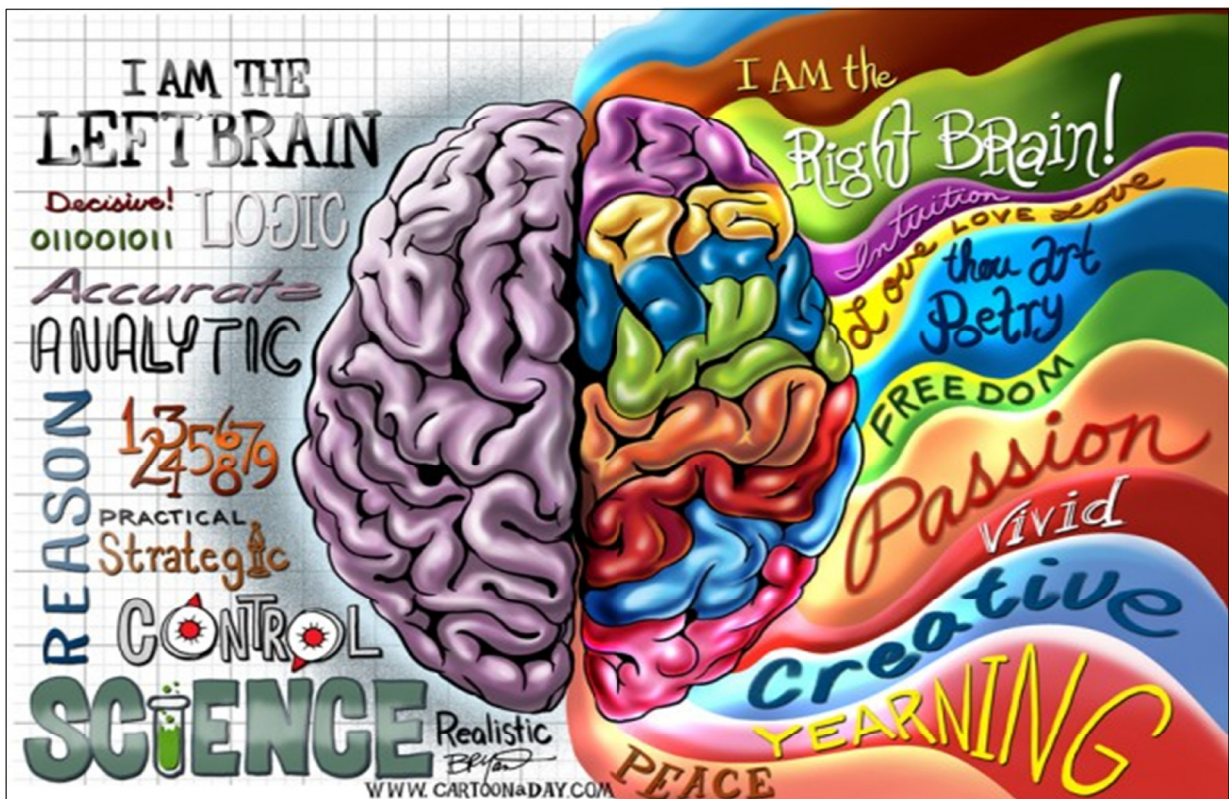


머신 러닝

지도학습
자율학습



실제 적용,
강화학습





암산 6급 연습문제

[급원 제2화-1] 제한시간 3분

영수: 필답원시간: 분 초

1	25 × 8 =	
2	90 × 5 =	
3	93 × 4 =	
4	30 × 7 =	
5	76 × 7 =	
6	50 × 3 =	
7	37 × 5 =	
8	70 × 6 =	
9	64 × 3 =	
10	80 × 4 =	
11	9 × 35 =	
12	8 × 30 =	
13	3 × 46 =	
14	9 × 50 =	
15	5 × 96 =	
16	2 × 80 =	
17	4 × 98 =	
18	6 × 50 =	
19	2 × 80 =	
20	7 ×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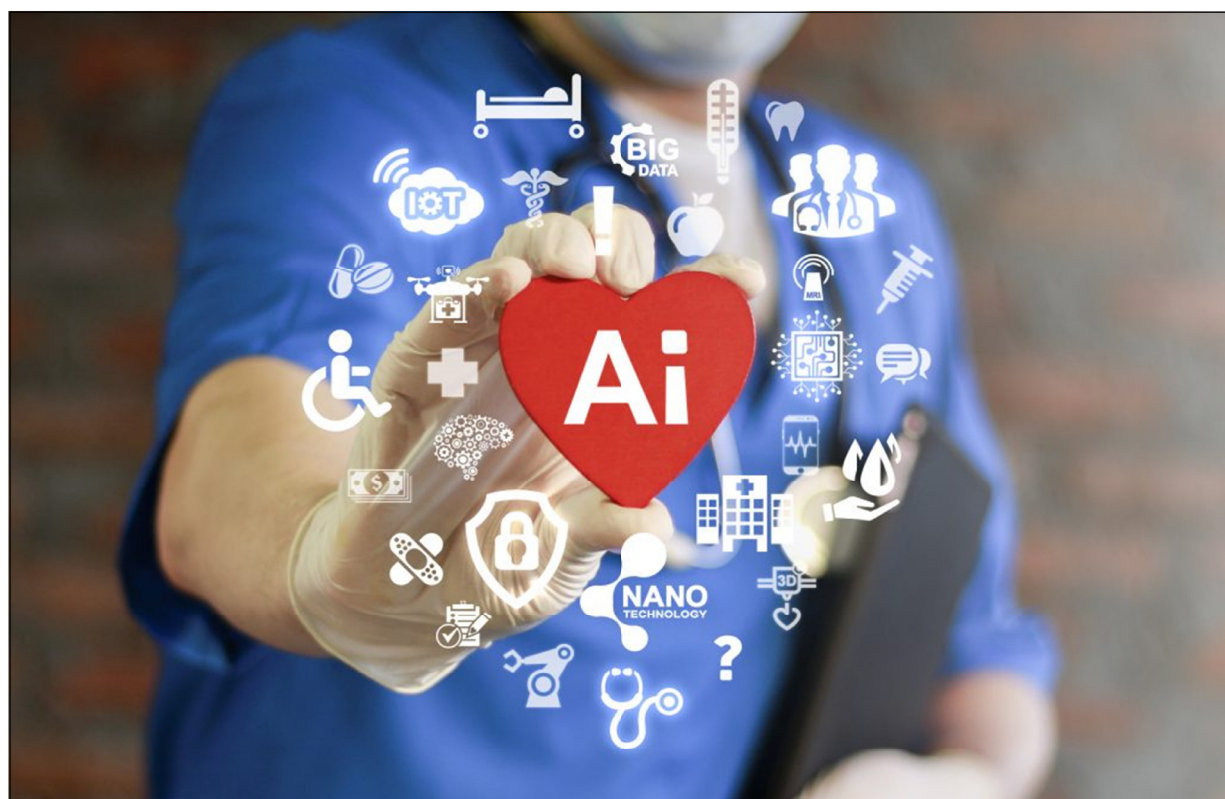
[급원 제2화-2] 제한시간 3분

영수: 필답원시간: 분 초

1	6 × 40 =	
2	8 × 75 =	
3	7 × 40 =	
4	2 × 26 =	
5	3 × 60 =	
6	4 × 50 =	
7	9 × 94 =	
8	5 × 96 =	
9	8 × 82 =	
10	4 × 35 =	
11	10 × 6 =	
12	76 × 8 =	
13	40 × 7 =	
14	34 × 4 =	
15	20 × 8 =	
16	41 × 1 =	
17	80 × 6 =	
18	27 × 3 =	
19	60 × 9 =	
20	74 × 3 =	

주안수리실 7





어떤 인재를 채용할 것 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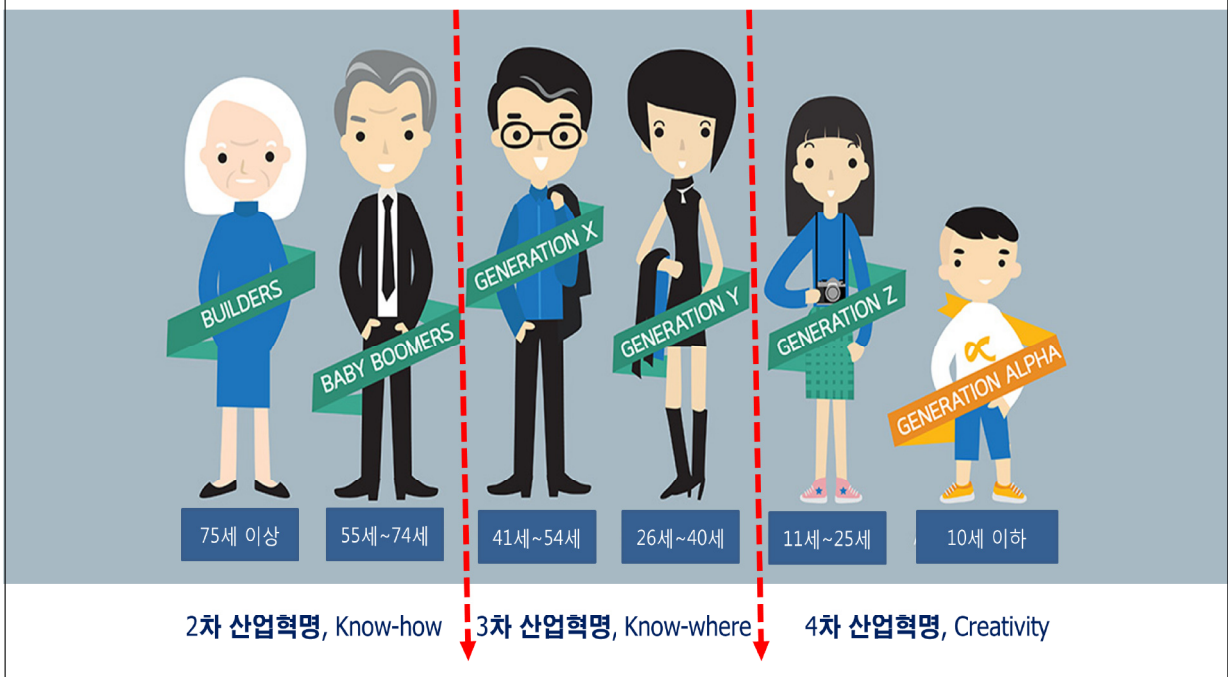
인공지능 시대, 채용 인재			
1	복잡 문제 해결	창조.혁신 능력	
2	비판적 사고		
3	창조성		
소통.협업 능력	4	인간 경영	
	5	협력.조정 능력	
	6	감정적 지능	
	7	판단과 의사 결정	
	8	서비스 지향 능력	
	9	협상력	
	10	인지 유연성	



비즈니스의 단 하나의 명제 나의 고객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나?



Centenial과 Alpha 세대로 고객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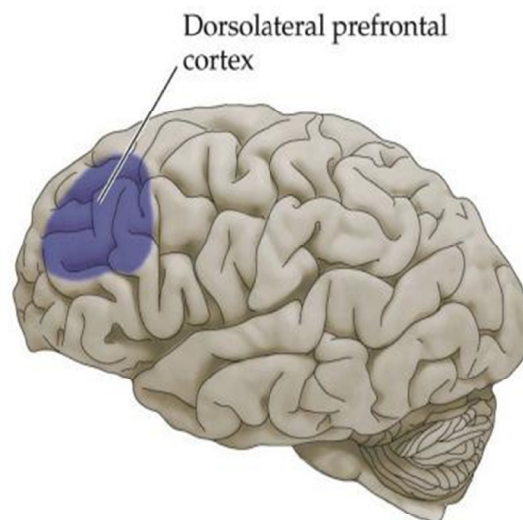
호모 파베르의 역설(Paradoxes of Homo Faber)

“인간은 기술을 만들고, 기술은 인간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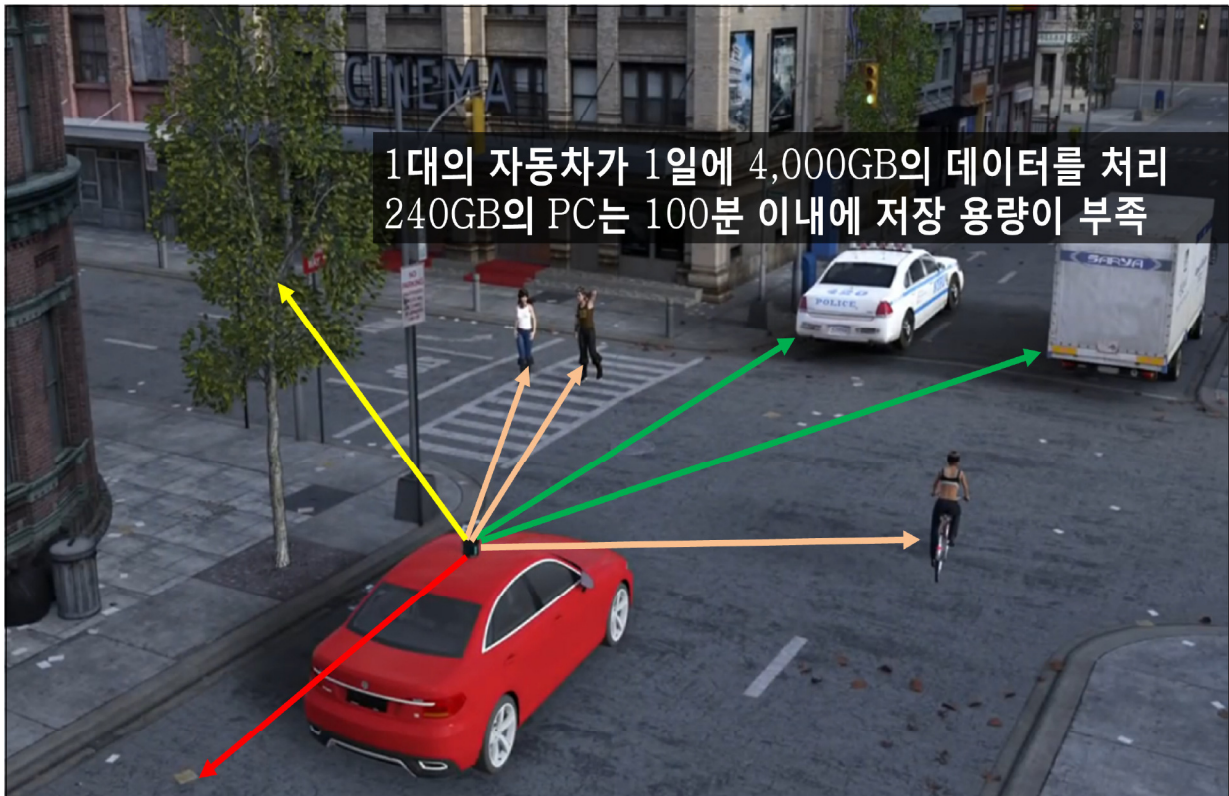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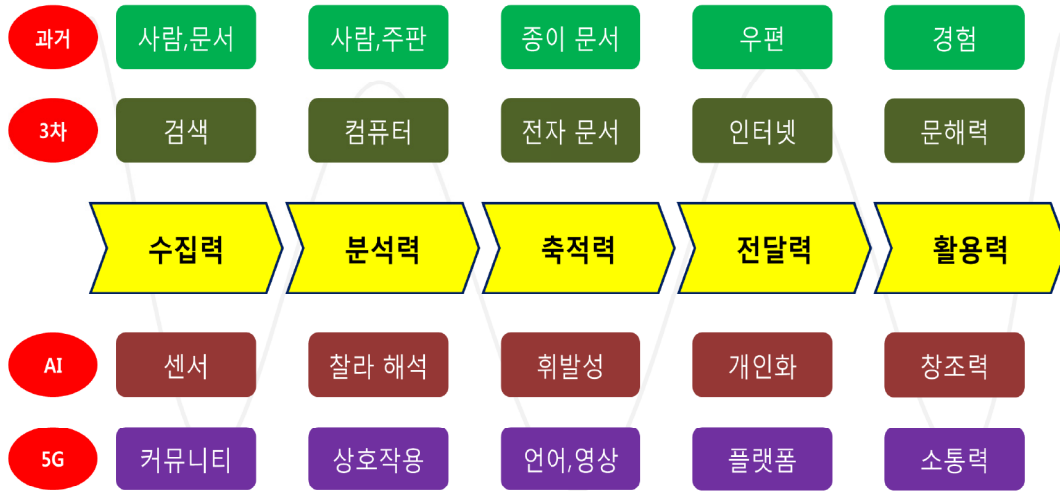


의사 결정과 복잡한 정보 통합에 관여하는 배측 전두엽 피질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라는 뇌의 부위가 크게 발달

- 미국 신경과학자 게리 스몰 -



지식력(Knowledge Power)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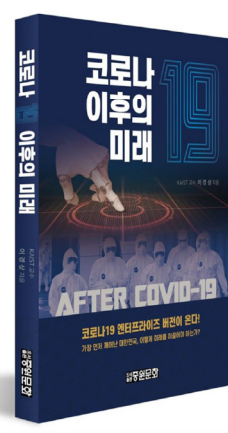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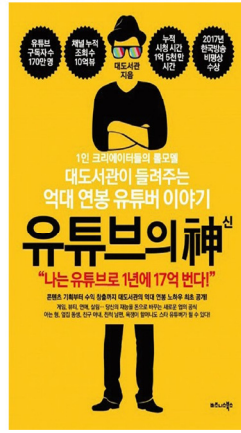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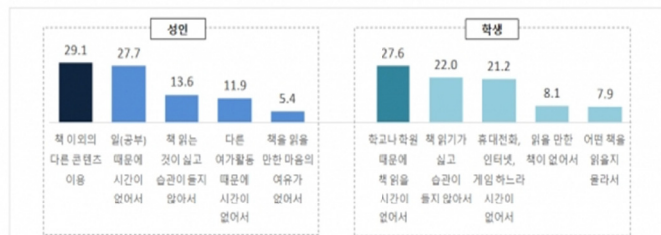
한국인의 SNS Top 5, 2019 4월-9월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10년 사이 연간 독서량이 20% 감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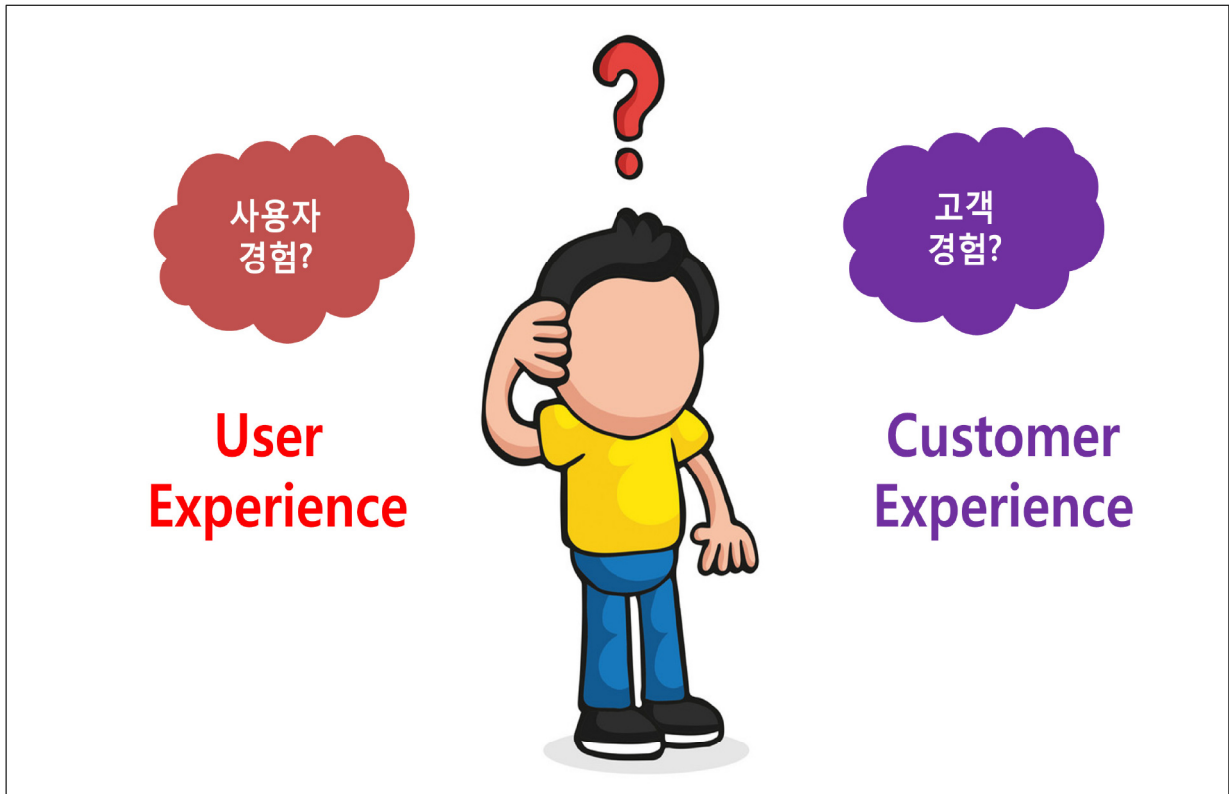
한국인의 동영상 소비 패턴, 2019. 11. 26.



*Source: Nielsen-Koreanclick Android&iOS Mobile Behavioral Data (2019.10)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능력자들의 탄생

-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도 다양한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자**
멀티태스킹(Multitasking)과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가 가능하다.
-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의견을 주고 받는 주연 배우를 원한다.**
 카톡, SNS를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을 알리고 소통하는 능력
- 신속한 반응과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원한다.**
 하나의 스테이지가 끝나면 즉각적인 피드백과 평가의 게임에 익숙하다
- 도전적이고 재미있을 때 몰입한다.**
 놀 때 놀고, 일 할 때 열심히 일하자는 이분법이 아니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환경과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고객 개인마다 서로 다른 디지털 고객 경험을 제공!

Personalization

1. Data-Centric
2. Differentiation
3. Design Yourself

#2. 디지털 원주민을 사로 잡아라!

YOUmedia: 23 개의 Chicago Public Library 의 혁신적인 Z세대 디지털 학습 공간

- ❖ 도서관은 평생 학습을 위한 십대의 통로에 있는 노드
- ❖ 지식 보다는 문해력을 통한 창조를 유도
- ❖ 세대 간 및 동료 협력을 통한 역량 변화 능력 함양
- ❖ 디지털 미디어, STEM 및 제작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 환경
- ❖ 전문 사서 및 관심있는 지역 사회의 전문가 멘토링
- ❖ iRemix 플랫폼에서 하루 24 시간 동료 및 멘토와 의사 소통







4차 산업 혁명 사람이 답이다!



KAIST 이경상 교수

3년간 매달 2~4편 게시, 구독자 3만, 조회수 350만

-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1,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
KAIST 이경상
14:32
-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2, 기업 연쇄도산과 2차 금융 위기
KAIST 이경상
14:18
-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3, 위기돌파형 시나리오 경영
KAIST 이경상
14:26
-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4, 소득저하시대의 소비자 행동변화
KAIST 이경상
13:54



주제발표 / 발표2

코로나-19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서비스에 미친 영향: 국제적인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

마리엔느 마튼즈

미국 켄트주립대학교 정보학 교수 /
IFLA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분과 상임위원

코로나-19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에 미친 영향: 국제적인 관점에서

마리엔느 마튼즈

미국 켄트주립대학교 정보학 교수/
IFLA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분과 상임위원

[슬라이드 1]

초록

2020년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봉쇄 기간 동안 어린이·청소년들의 기술 접근성 또는 기술 접근성 결여가 주된 사안이 되었다. 보다 자세한 현황파악을 위해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 ‘코로나19 대유행 후 도서관 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는 IFLA 소식지(Thematic Newsletter) 2020년 4월호에 게재되었는데, 다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도서관과 이용자 모두 (1) 기술적 도구, (2) 인터넷, (3)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반면, 지역마다 기술적 도구, 인터넷,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격차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기술과 인터넷 접근이 어디에서나 가능한 **독일**의 경우,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 베를린 중앙도서관에서는 신속하게 영화, 음악, e-북, 학습도구 등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들은 글짓기 대회 등과 같은 참여형 행사를 추진하였고, 도서관 직원들은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 지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에서는 자택 대기(stay-at-home)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지원, 오락 서비스, 최신 바이러스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앱을 제공하였다. **노르웨이** 도서관들은 지역별 방언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스토리텔링 세션을 라이브 방송 또는 녹화 방송 형태로 내보내기도 하였다. **러시아** 국립청소년도서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이용, 역량, 그리고 보안 문제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이탈리아와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기술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격차가 심한 만큼 서비스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탈리아의 경우 도서관마다 기술 접근성과 직원들의 활용 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웹사이트를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들이 있는가 하면, 기술력이 미흡한 도서

관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도서관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파에서 배우기 (Lessons on the Couch)’와 같이 사서들이 작가와 삽화가들과 협업하여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스토리타임이나 강연을 진행하는 등 기술적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2020년 여름, 미국의 코로나19 피해 규모는 매우 컸으며, 2020~2021년 학기 운영 계획은 불투명하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 도서관들에게 디지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들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접근하고, 기기와 핫스팟을 대여하거나 이동도서관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그리고 미래에 직면하게 될 유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 접근성 증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태블릿, 핫스팟, 그리고 활용 교육을 제공하든, 전통적인 서비스에 디지털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든, 도서관들에게 현 사태는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엔느 마튼즈라고 합니다.
- 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해 있는 켄트주립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 IFLA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 비록 코로나19의 여파로 세미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만 잘 개최되길 바랍니다.

[슬라이드 2]

코로나19 이전

- 확신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코로나19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분야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확실합니다.
- 하지만 앞으로를 내다보기 전에 우선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기술과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부모와 양육자들은 아이들이 디지털 화면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다소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실제로, 2011년에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영유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 하지만 2015년에 들어, 그럼에도 부모들이 아이들과 이러한 기술을 여전히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소아과학회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 “금지”에서 “제한”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소아과 전문의들은 실제 가정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상관없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제품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 그리고 어린이 담당 사서들은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상의 자원을 추천하고, 활용 방법을 알려주고, 최신 연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말이죠.
- 실제로, 이는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기도 합니다.
-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들은 아이들과 그 가정에 필요한 “최상”의 무언가를 찾아주는 것을 과업으로 여겨왔고, 얼마 전까지 그 무언가는 모두 책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새로운 매체가 도입되면서, 사서들은 도움을 원하는 부모와 소아과학회와 같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단체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 미국 어린이도서관서비스협회(ALSC)에서 2014년과 2018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리텔링 도구로써 활용하거나, 집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대여해주기도 합니다.
- 도서관에 태블릿 PC를 비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자신의 기기에 특정 앱을 설치하기 전에 다양한 앱과 새로운 매체 도구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도서관에 와서 사용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부모, 사서, 교육자들 모두가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와 그 활용 방법에 대해 압박감을 느껴왔습니다.
- 디지털 미디어를 찾고, 평가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특히 각각의 성능도 다른 만큼 아이들에게 개인별로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 별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있었고, 지나치게 빨리 습득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 사실, 아직도 디지털 기기와 아이들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노르웨이 학자 아네 망엔(Anne Mangen)과 같은 학자들에 따르면, 아이들은 종이책으로 글을 읽을 때보다 화면으로 읽을 때 집중도가 떨어졌으며, 시험 성취도면에서도 시험을 화면으로 보느냐, 종이와 연필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디지털 기기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필요성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디지털 미디어 형식이 학습, 특히 다양한 학습 양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 미디어가 학습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형태의 전자 자원이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3]

디지털 격차

- 문제는 무엇이 권장되든지 또는 부모들이나 부양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발도상국에서조차도 디지털 미디어에 누구는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는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

는 것입니다.

-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PEW에서 발표한 ‘2019년 인터넷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미국인 성인의 90%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73% 이상이 집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결과는 매우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이러한 격차로 인해) 뒤처지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시험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 저학년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면서 말이죠.
- 성장 과정에서 디지털 화면을 인식하고 활용 능력을 갖추는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하고 처음으로 디지털 화면을 접하는 아이들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요한 학교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은 이러한 디지털 격차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초래될 결과는 향후 몇 년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슬라이드 4]

코로나19 대유행과 세계 각국의 도서관 서비스

- 코로나-19가 전 세계 도서관에 가져온 변화 중에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가에서 국가로 전파되었고, 2020년 3월, WHO는 이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로써 모든 국가들이 차례로 실효적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인 도서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 자료와 정보를 얻고, 콘텐츠와 프로그래밍을 통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의 보고로서 의지해왔습니다.
- 어떤 이들에게 도서관은 안전하고 언제나 열려있는, 직장이나 집이 아닌, “제3의 공간”으로써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 2020년 4월,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에서 특별 뉴스레터를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봉쇄 조치 기간 동안 각 위원들이 어떤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EBLIDA(유럽도서관정보문서협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유럽 도서관에 관한 의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 두 가지 보고서 모두 국가마다 사서들이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창의력, 유연성, 그리고 적응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5]

최우선 과제: 접근성

- 사서들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 사실, 이는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유행으로 도서관이 문을 닫게 되면서 도서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크로아티아 도서관들의 경우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원격 도서관 서비스’ 웹사이트를 만들어 클릭 한 번으로 디지털 자료와 포털, 정보화 서비스, e-북 플랫폼, 교육·오락 콘텐츠와 사서들을 위한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덴마크에서는 이미 디지털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필요성이 더 부각되면서 첫 봉쇄 조치가 시행된 올해 봄에는 이 서비스가 8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덴마크에서는 ‘eReolen’ 또는 영어로는 ‘e-Shelf’라고 불리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도서, 영화, 교육 자료,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는 오디오북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 독일 도서관들의 경우 학습 도구나 교육 자원부터 영화 및 음악 실시간 재생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넓은 범위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이 모든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봉쇄 조치 이후에는 심지어 이용증이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독일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이미 ‘Karanteket’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영상 e-북 등을 포함한 방대한 범위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에 이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IFLA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 의장 요룬 시스타드(Jorun Systad)에 의하면 “노르웨이 정부는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에서는 납본된 노르웨이 도서들에 대한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도서관의 e-북 수집을 늘리기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스웨덴은 별다른 봉쇄 조치가 없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모두 봉쇄 조치에 들어갔음에도 말이죠.
- 스웨덴 도서관들은 e-북 서비스 규모와 이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종이책의 경우 대출 기간을 늘려주고 연체료를 감면해주었습니다.
-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서를 배달하고 이용자의 현관에 요청한 도서를 걸어놓는 방식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 독서 동아리는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위기와 그 영향에 대한 국가적 토론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슬라이드 6]**거시적 지원**

- 싱가포르는 굉장히 흥미로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싱가포르에서는 공식 언어로 4개 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에서는 매주 스토리텔링 세션을 4개 국어인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로 운영했고, 이는 페이스북을 통해 4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에서는 앱도 개발하였는데, 앱을 통해 방대한 디지털 자료와 더불어 STEM 활동, e-북, 이블테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해리포터와 같은 자료도 제공하였으며, 바이러스 발생, 세계적 대유행, 백신, 공중위생 등과 같은 자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또 다른 중요하고 흥미로웠던 것은 힐링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재택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새로운 취미활동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7]

- 교육 지원도 도서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 베를린의 사서들은 학생들의 학업을 도와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올봄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 IFLA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 정보 담당관인 벤자민 쉘플러(Benjamin Scheffler)가 설명하길 대유행 이전에는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무료로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아왔고, 더 나아가 신청하는 이들에 한해 전문화된 개인지도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올봄에는 독일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치르게 되는 대학 입시 시험인 Arbitur를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전화로 독일어, 영어, 불어, 수학, 그리고 라틴어 과목에 대한 원격 개인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이 밖에도 다양한 교과목 관련 학습 지원, 국가, 인물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갖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시사 공부를 위한 신문, 잡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 또한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 리투아니아 국립도서관에서는 기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격리기간 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도서관 컴퓨터를 대여해주었습니다.
- 도서관에 배정되었던 약 35,000대의 태블릿과 노트북은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대여하고 격리 해제 후 도서관으로 반납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 미국의 경우 카이어호가 카운티 공공도서관 등 몇몇 도서관들이 이동식 핫스팟을 대여해줌으로써 휴대폰,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무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진의 주인공인 알래스카 지역 사서 클라우디아 헤인즈(Claudia Haines)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AM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라이스 8]

교육 지원

- 이탈리아의 경우 도서관마다 역량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대응법 또한 다양했습니다.
- IFLA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 위원 안토넬라 람베르티(Antonella Lamberti)에 의하면, 이탈리아 내에서도 기술 접근성뿐만 아니라 기술 활용 능력 또한 도서관 직원마다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 또한, 노사 계약에 따라 직원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 도서관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도서관의 경우, 봉쇄기간 동안 도서관이 사라지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도서관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창의적인 방안을 생각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스토리타임 운영, 작가와 출판사들의 콘텐츠를 설명하고 공유하는 활동,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스토리타임 만들어보기, 그리고 마침내 협력을 통해 ‘소파에서 배우기(Lessons on the Couch)’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연령대별 학습, 만들기, 활동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일본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부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무료 e-러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민간 교육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 위원인 나오키 나카지미(Naoko Nakajimi)는 “부모나 보호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무료 콘텐츠를 찾기란 쉽지 않은데, 특히 정보가 무한한 웹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 나카지미는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일본에서 그동안 e-자원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대유행이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일본의 어린이 담당 사서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그동안 등한시하였지만, 이번 대유행을 통해 e-러닝이나 독서 콘텐츠를 통한 지식과 능력 배양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일본의 어린이 담당 사서들이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교육 기간

- 러시아 도서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을 교육의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 시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험(Digital Dictation)’이라는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을 실시하였

습니다.

- 캠페인을 통해 인터넷과 기술이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연령대별 온라인 테스트를 7~13세 어린이, 14~17세 청소년, 18세 이상 성인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 온라인 테스트는 총 4개 영역 (1) 디지털 소비의 기초 (2) 디지털 능력 (3) 개인 정보 및 기기 보호를 포함한 디지털 보안 (4) AI, 블록체인, IoT와 같은 신기술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슬라이드 9]

디지털 스토리타임

-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사서들이 대면 프로그램 대신 온라인 스토리텔링 세션을 운영하였습니다.
- 일부는 도서관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 사서인 에미코 고에쿠(Emiko Goeku)에 따르면, 소규모 비영리 기관인 도쿄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유튜브를 이용한 디지털 스토리타임을 1월 말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처럼 말이죠.
- 대면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로 한 시점은 (1월 말이 아니라) 2월 말이군요.
- 도쿄 어린이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들이 직접 그림책이나 전래동화를 이용해 짧은 스토리텔링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10]

- 뤼르데 도서관의 잉군(Ingunn)과 같은 노르웨이 사서들은 유튜브를 통해 전래동화 다시 들려주기 콘텐츠를 제작하였는데,
- 슬라이드 사진과 같이 노르웨이의 전래동화인 「팬케이크(The Pancake)」라는 이야기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잉군(Ingunn)이 제작한 다시 들려주기는 지역 방언으로 제작되었으며,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공용 도메인의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11]

저작권 문제

- 이처럼 저작권 문제는 많은 도서관들이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대두되었습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많은 이들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작가와 삽화가들은 사서들이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권리는 사실상 출판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사서 나오코 나카지마(Naoko Nakajima)는 웹에서 콘텐츠를 찾기는 매우 쉽지만, 저작권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 많은 유튜브 게시물에 저작권 표시 없이 그림책 콘텐츠가 포함되곤 하는데, 이 때문에 출판사들은 이러한 무료 온라인 책 읽어주기 콘텐츠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다행히도, 봉쇄 기간 동안 많은 출판사들이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허가해준 덕분에 대부분의 경우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가을 학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려는 학교가 많아짐에 따라 출판사들도 저작권 사용을 갱신하거나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 일례로, 출판사 Penguin Random House는 온라인 스토리타임, 수업용 책 읽기 영상물, 실시간 행사 등을 위한 개방형 라이선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슬라이드 12]

참여 기회와 행사

-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과 별개로, 일부 도서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운영되었던 대면 프로그램과 같이 이용자 참여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 중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 창작한 이야기, 시, 또는 예술작품을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 덴마크의 한 도서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이 웹사이트 "단어 놀이"라는 의미의 "Ordskaelv (오아스킨)"입니다. (참고로) 덴마크어로 "Jordskaelv"는 "지진"을 뜻하고, "Ordskaelv"는 "어휘"를 뜻합니다.
- 아이들의 창작물이 순서대로 취합되어 e-북으로 발간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탄생한 놀라운 창작물이자 향후에 기념할만한 결과물이 될 것 같습니다.
- 독일의 도서관들은 다양한 이용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포츠담 주립 도서관은 글쓰기 대회, 편지쓰기 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슬라이드 13]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도서관에서는 사서 두 명이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고르고 설명하는 디지털 전시 'Paintings from the Collection'을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 그림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은 유익하면서 아이들 눈높이 맞게 멋지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앞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는데 있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렇게 학문을 넘나드는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 10세 소녀 조지아(Georgia)가 쓴 글을 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 학교에서 ‘최초의 수인 선단(First Fleet)’에 대해 배웠을 때 관심을 갖게 되어 이 그림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 ※ 최초의 수인 선단: 호주 건국의 순간을 상징하는 사건. 1788년 1월 11척의 영국 선단(船團)이 보타니만(灣)에 도착하면서 개발의 근거지로서 시드니가 건설됨
-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군인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 제가 붓으로 그려 넣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선박과 재소자들, 당시 참혹함을 경험한 191명의 여성, 568명의 남성, 그리고 13명의 어린이들을 그려 넣을 것입니다.
- 거친 바다에 병든 재소자들은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그려 넣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 [작품] The Founding of Australia(호주 건국). Arthur Phillip R.N. 시드니 해안가. 1788년 1월 26일.
- 불가리아에서는 기존에 직접 만나서 진행되던 행사들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져 진행되었습니다.
- 시낭송 행사와 같이 시인, 작가와 함께하는 전통적인 행사, 어린이책의 날과 같이 늘 대면으로 진행되어왔던 행사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 사서들은 어린이 ·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한 작가와 삽화가들의 연락처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노르웨이 사서들은 어린이 · 청소년 이용자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며 보다 발전된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독일 사서들은 자신들의 재택근무 사진을 공유하여 사서들의 도서관 밖 일상을 살짝 공개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청소년 이용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방안: 테이크아웃 서비스 (덴마크)

-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덴마크에서는 ‘Little Free Libraries’라는 개인 소장 도서를 서로 공유하는 지역사회 기반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 위원인 덴마크 사서 쇠렌 달-모텐슨(Søren Dahl-Mortenson)는 2020년 5월에 재개관을 준비하면서 “책을 빌려보는 것보다, 스토리텔링, 음악, 영화, 만남,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 행사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 상호적 요소들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구현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도서관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 자료,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도서관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문화 행사에 참

여하거나,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숙제 도움을 받거나,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이력서 작성이나 구직 도움을 받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3의 공간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14]

전환: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서비스

-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배운 것은 상황에 따라 기존의 업무를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과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서들은 공무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 독일과 노르웨이 모두 도서관이 봉쇄됨에 따라 일부 사서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다른 일부는 타 공공 부처로 파견되기도 하였습니다.
- IFLA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 위원 벤자민 쉘플러(Benjamin Scheffler)는 정보제공 핫라인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접촉자 추적 검사 업무를 하도록 사서들이 투입되었으며, 공공보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사서들이 코로나 검사 지원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하였습니다.
- 지금 슬라이드의 사진은 뉴욕 퀸즈도서관 사서가(피닉스의 경우와 같이) 코로나 검사를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 EBLIDA 보고서에 의하면, 핀란드 사서들은 전화 스토리타임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 특히 고령자들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핀란드 사서들은 필요한 경우 사회약자들을 위해 책 대신 음식을 배달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15]

마스크 제작하기

- 리투아니아 국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50개관과 로봇 공학 학교들이 함께 3D 프린터로 보건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고위험 장소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들을 위한 마스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 다행스럽게도 2019년에 리투아니아 공공도서관은 58대의 3D 프린터기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 포르투갈, 프랑스, 아일랜드 도서관들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국가 보건 활동에 투입되었습니다.

- 아일랜드에서는 도서관에서 3D 프린터로 제작한 병원용 페이스시드를 포함한 다양한 물품을 기부하였고, 정신 건강 관련 온라인 강좌나 워크숍을 운영하고, 또한, 취약계층에 독서 자료 지원 묶음을 보내주고, 지금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위기를 구술사로 기록하기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 애리조나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사서들도 접촉자 추적 검사 업무에 투입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아일랜드 정부에서 사서와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을 인식하고, 세인트 패트릭의 날 연설에서 아일랜드 총리 레오 바라드카(Leo Varadkar)는 특별히 "높아지는 요구에 따라 e-북 예산을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3D 프린터 작동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는 사실 사서 직무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 하지만 도서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사서들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슬라이드 16]

코로나19 이후의 도서관

- 지금 이 세미나도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과 같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대부분의 컨퍼런스를 비대면으로 참석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컨퍼런스에서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서 미래의 직장 상사나 동료를 만나거나, 커피 브레이크에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조력자를 만나는 등과 같은 직접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비대면으로 이루지는 컨퍼런스에서는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거나 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출장이 불가능하여 참석이 어려웠던 사람들까지 참석이 가능해졌습니다.
- 사실,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 참석 방법을 달리하여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 도서관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함으로써 요구를 파악하고 발 빠르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 EBLIDA 보고서에서는 도서관들이 이미 겪고 있는 예산 부족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2008~2009년 경제 위기의 장기적인 여파로 도서관에 배정되는 예산 규모는 늘 한정적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아직도 2008년 경제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서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행정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조정, 중점 투자, 예산 절감, 그리고 불필요한 도서관 분관 정리하기 등의 명목을 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 이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e-대여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 도서관과 출판사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이며, 상호 만족할만한 요금이 책정될 수 있을까요?
- 출판사들이 이를테면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같은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저작권 차원에서 유연성을 유지해줄까요?
- 디지털 격차 문제는요?
- 모든 도서관이 모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초고속 데이터망 정책은요?
-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 전세계 도서관들이 이용자들 대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은 저작권, 데이터 보안, 온라인 안전성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번 대유행은 많은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대체 언제 종식이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 우리 모두가 알고 싶은 것이지요.
- 언제쯤 대면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까요?
-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지금 한창, 미국에서는 학교들이 가을 학기 개강을 준비하고 있지만, 학기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매우 다릅니다.
- 어떤 학교들은 여느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학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말이죠.
- 어떤 학교들은 개강을 했다가 다시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 시카고와 같은 지역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모든 아이들이 컴퓨터나 태블릿을 보유하고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민관 합동으로 10만 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는 “Chicago Connected”라는 프로젝트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사업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 이번 가을 학기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에 대한 논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17]

-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기술과 교육 접근성을 제공하고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세계 도서관들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 그리고 이 목표는 분명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 Impact of Covid-19 on Library Servic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Marianne Martens, Ph.D.

Associate Professor, Kent State University/
Secretary, IFLA's Section on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LIDE 1]

Abstract

Since the beginning of 2020, The Covid-19 pandemic has impacted library servic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around the world. In many countries, young people's access to technology--or lack thereof--has been a concern during shut-downs. In order to find out more, IFLA's Section on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urveyed its members about how they were addressing library service during the pandemic, and published the results in thematic newsletter in April 2020 which demonstrated very mixed results. We found that in countries where both libraries and patrons have access to: 1) technology tools; 2) the Internet; and 3) the skills to use both, libraries were very quick to move toward digital services. In countries with mixed access to tech tools, the Internet, and the required skills to use both, service varied.

For example, in Germany, where technology and Internet access is nearly ubiquitous, Berlin's Central Library was quickly able to offer online access to film, music, ebooks, and learning tools shortly after the country's lock-down. Their librarians serving young people created participatory events such as writing competitions, and library staff was available to tutor students struggling with online learning. Singapore's National Library offered a website and an app with stay-at-home activities that supported learning, resources to entertain, as well as the latest virus information. Norwegian librarians created online storytelling sessions--both live and recorded--with storytellers telling tales in regional dialects. And the Russian State Library for Young Adults saw an opportunity to teach teens about digital literacy: from consumption, to competencies,

to issues of security.

In countries such as Italy and the United States, where both access to technology and the skills to use it vary widely, service varied accordingly. In Italy, where libraries have uneven access to technology and staff training, some libraries were able to offer sophisticated service via their websites, but systems with less technology were not. In some of those locations, librarians worked with authors and illustrators to help fill gaps by offering storytimes and instruction via social media channels, such as *Lezioni sul Sofa* (Lessons on the Couch). During summer 2020, the United States led the world in Covid-19 cases, and there are many uncertainties about the 2020-2021 school year. The pandemic has shown libraries around the world that digital service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Librarians serving youth have shown their resilience and creativity by reaching patrons via social media channels, by lending devices and hotspots, or by providing access via bookmobiles. The need to continue to boost access to technology will be a major priority for the duration of this pandemic, as well as any others we may encounter in the future. For libraries, this represents an opportunity to support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the communities they serve, whether it is through access to tablets, hotspots, and training in how to use them, or finding new ways to provide traditional service in digital ways.

[SLIDE 2]

While it is still too early to say for sure, it is almost certain that Covid-19 has forever changed youth services librarianship. But before we look forward, let's start with a look back.

Before the Pandemic

For children in developed countries with access to technology and to the Internet, prior to the pandemic, parents and caregivers had mixed feelings about children using technology, and were concerned about too much screen time. In 2011, the American Association of Pediatrics (2011), issued what was basically a ban for all screen time for the youngest children. But this policy was modified in 2015 to one of restricted use, as pediatricians realized that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were using screens despite the ban.

While many families use digital tools with their children, many are not aware of

quality products available for their children, and often, children’s librarians are the ones to fill the gap, providing recommendations for the best resources, guidelines for use, and information about the latest research. Indeed, this is what youth services librarians have been doing since the inception of the field. Youth services librarians have been tasked with finding the “best”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nd until recently, “the best” has been centered around books. With new media, librarians were stuck between parents seeking recommendations, and organizations such as the AAP advising against use, or advocating for restrictions on use, suggesting limits, or creation of a family media plan.

In the United States, surveys done by the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 (ALSC) in 2014 and 2018 showed that libraries were increasingly using digital tools with patrons as tethered devices, in storytimes, and providing access to those who might not have access at home (Young Children, New Media, & Libraries, 2018). Tethered tablets in libraries allowed patrons to “try-out” different apps and new media tools before downloading them to their own devices, and provided access to those who otherwise might not otherwise be able to use them.

Prior to the pandemic, parents / librarians and educators were overwhelmed when it came to digital media for young children, and how to use it. Finding it, evaluating it, and using it is complicated, especially as the quality varies, as is its effect on each child. In fact, there still isn’t enough research on screens and young people, but scholars such as the Norwegian researcher Anne Mangen (2013) has found evidence of young people retaining less when reading on screens than when they read in print, and also evidence of discrepancies in test taking on screen versus in print. But still - librarians were in an awkward place, straddling the space between the AAP and parents’ requests. And despite concerns around apps, there was growing evidence that quality digital media formats can encourage learning—particularly in supporting different learning styles (NAEYC & Fred Rogers, 2012). Whether or not digital media encourages learning, the pandemic has shown that electronic resources of all kinds are necessary.

[SLIDE 3]

Digital Divide

A huge problem is that whatever recommendations (or parents and caregivers’ desires), the reality is that even in developed countries,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ose who have access and those who do not. According to the PEW Internet factsheets (PEW, 2020), in 2019, 90% of adults (those over 18) in the United States used the Internet, and 73% of adults in the US had Internet at home, young people's access looks very different. Even before the pandemic, there was a risk of many young people being left behind, especially as testing in schools, even for children in the early years, has been gravitating towards screens. Evidence shows that children growing up with screen awareness and proficiency in use, have an advantage over children encountering screens for the first time when they enter schools, and many parents now consider screen time as an important part of children's school readiness. But the pandemic has only reinforced this divide, and we will see the results among school children in the years ahead.

[SLIDE 4]

Library Service Around the World During Covid-19

During 2019 and early 2020, Covid-19 spread from country to country until in March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it to be a pandemic. At that point, as countries everywhere began to effectively shut down, libraries were lost in the middle. As public institutions that serve all people, people rely on libraries as important sources for educational materials,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via content and programming. For others, libraries represent a safe and welcoming "third space" *The Great Good Place*, Oldenburg (1989, p. 16) that is neither a place of work nor home where they can spend time. As libraries out of necessity shut their buildings, those libraries that could do so, transferred services into online spaces. In April 2020, IFLA'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n Library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Section on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created a special-topics newsletter reporting (IFLA C&YA, 2020) on how its members around the world continued to serve young people during the shutdown in new and innovative ways. EBLIDA, the 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ssociations, created a report called "A European library agenda for the post-Covid 19 age" (EBLIDA, 2020). Both of these inform this paper, which demonstrates librarians' creativity,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in providing services in their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SLIDE 5]**First Priority: Access**

Perhaps the fundamental mission of libraries is to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and this was the first priority for many libraries around the world as the pandemic caused them to close. The Croatian Library System went to great efforts to provide access to patrons, creating a website called *Remote Library Services*, on which “digital collections and portals, information services, e-book platforms, educational and recreational content and information for librarians” (Croatia, 2020). Denmark already offered digital resources for young people, and Covid-19 just highlighted the need for these types of materials, as service expanded 85% during the initial lockdown in spring. The online service called “eReolen,” (eReolen, 2020) or the “e-Shelf” in English, offers free books, movies, and educational resources. German libraries were able to offer a large range of digital services from learning tools and resources for education, to film and music streaming for entertainment. All services were provided free-of-charge to library card holders--and during the pandemic, even to those without a card. As in Germany, Norway already offered a large selection of digital services through its Karanteket website (Karanteket, 2020). including books, film ebooks, and more, and was well-prepared to serve library patrons through digital services. Chair of IFLA’s Section on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Jorun Systad wrote: “The Norwegian government also offers extra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databases to students and researchers. The Norwegian National Library offers free access to all legally deposited Norwegian publications, and extra fund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e-Books in public libraries” (Newsletter, 2020).

Unlike other European countries, Sweden largely stayed open. But its libraries expanded access to e-books and increased their e-book budget. They offered extended lending periods for physical materials, and removed fees. They offered touchless home delivery of books by bike, and hung requested books on recipients’ doors. Book clubs went virtual, and a national debate about the effects of the crisis on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areas was live-streamed (Newsletter, 2020).

[SLIDE 6]**Holistic Support**

Singapore offered a kind of holistic support. The fact that there are four national languages in Singapore meant that the 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 offered “...

weekly storytelling sessions featuring titles in our four official languages of English, Malay, Chinese and Tamil on NLB's Public Libraries Singapore Facebook starting from 13 April." The National Library in Singapore created an app, and in addition to a rich selection of digital library services, with everything from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to STEM learning activities, ebooks, such as the *Harry Potter* books in multiple languages, they included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public about: virus breakouts, pandemics, vaccination and public health in Singapore; and a thoughtful addition--the app also addresses mindfulness, helping patrons cope with uncertainty related to the pandemic, such as the stress of working from home, and even guided patrons to develop new hobbies.

[SLIDE 7]

Educational Support

Librarians in Berlin are uniquely poised to help young people with their studies, and this spring was no different. IFLA's C&YA Information Coordinator, Benjamin Scheffler, described how pre-pandemic, students could usually take advantage of daily free homework help at the library, and more specialized tutoring sessions could be scheduled. But this spring, as German students prepared for their nationwide "Arbitur" exams, students were able to arrange for distance tutoring (either online or by phone) in subjects from German, English, French, mathematics and Latin. Other educational support included access to: learning aids for a variety of school subjects; a large database with up-to-date information on countries, biographies etc.; and databases of newspapers and magazines which made it possible to research more topical subjects. All of these services were provided free-of-charge.

The National Library of Lithuania provided access to technology, lending library computers to school children and teachers during the quarantine. "Some 35,000 tablets and portable computers allocated to libraries are now transferred temporarily to children of socially sensitive families and then returned to libraries at the end of the quarantine" (EBLIDA, 2020). In the United States, several libraries, such as the Cuyahoga County Public Library in Ohio, lent portable hotspots, providing free internet access to those who have phones, tablets, or computers. In rural Alaska, librarian Claudia Haines created AM radio-based programming for her patrons, many of whom do not have Internet access (D'Oro, 2020).

[SLIDE 8]

In Italy, response to the virus was varied, as libraries have a huge range of different capabilities. According to IFLA C&YA member Antonella Lamberti, access to technology, as well as staff training on use varies greatly in Italy. In addition, employer contracts impacted whether or not employees could work from home. In some cases where librarians were unable to work from home, libraries disappeared during the lockdown. But those librarians who could work from home came up with creative solutions--offering storytimes via social media channels, curating and sharing content from authors and publishers, creating homemade storytimes via smart phones, and eventually, creating the “lezioni sul sofà” (lessons on the couch) website which offered lessons, crafts, and activities, all organized by age.

In Japan,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s a linked collection of free e-learning content on its website, and education-related companies generously provided e-learning content. But according to C&YA Member Naoko Nakajimi, “it remains difficult for children’s guardians to find free, reliable, and high-quality reading content on the web, the great sea of information” (Newsletter, 2020). Nakajimi also points out that prior to Covid-19, Japan had not focused much on e-resources. Of course that has changed with the pandemic: “Although Japanese children’s librarians seem to have paid less attention to digital content on the web until now, [the pandemic] is making us more aware of the necessity of providing knowledge and skills on e-learning and reading content. Japanese children’s librarians now need to learn more about them, so they can provide good navigation to reliable, good quality sources” (Newsletter, 2020).

A Teaching Moment

In Russia, libraries used the lockdown as an opportunity for a teaching moment. They mounted an innovative digital literacy campaign for citizens called “Digital Dictation.” This campaign, acknowledging the important role that the Internet and technology plays in our lives, provided online testing designed to match different age groups: children (7-13 years old), teens (14-17 years old) and adults (18 years and older). The content was divided into 4 blocks: Basics of digital consumption; Digital competencies; Digital security, including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devices;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and the Internet of Things (Newsletter, 2020).

[SLIDE 9]**Digital Storytimes**

Across Danish and Swedish library systems, librarians offered online storytelling sessions in-place-of face-to-face programming. Some of these stories were posted via library websites, and on social media channels. According to librarian Emiko Goeku, the Tokyo Children's Library, a small non-profit organization, started digital story hour via YouTube at the end of February, when they decided to temporarily suspend their face-to-face story-hours. As Tokyo Children's Library has its own publishing house, the librarians were able to make short storytelling videos using their picture books and folktales.

[SLIDE 10]

Norwegian librarians, such as Ingunn from the Førde Library, created a YouTube re-telling of a traditional tale called *The Pancake* (Ingunn, 2020). Her retelling, done in local dialect, avoided copyright by using a work in the public domain.

[SLIDE 11]**Copyright Issues**

The abundance of online storytelling led to emerging legal issues, as many did not follow proper copyright protocols. In the US, authors and illustrators were granting permission for librarians to do public, online readings of their work, but in actuality, such permissions have to come from the publishers who generally own the performance rights to the books they publish. Naoko Nakajima, Librarian at Tokyo's National Diet Library, describes how it is easy to find content on the web, but there are often copyright issues. YouTube clips show picture book content without necessarily identifying copyright holders, and most publishers don't appreciate such free online read-alouds (Newsletter, 2020). But fortunately, during lockdown, many publishers responded quickly, in many cases by generously granting wide approvals for digital storytelling to occur, and now that many schools in the US are going online for Fall 2020, they have renewed or extended these permissions. One example is Penguin Random House, which extended its Open License Online Story Time and Classroom Read-Aloud Videos and Live Event through December 31, 2020.

[SLIDE 12]**Participatory options and Events**

In addition to content provided, Danish libraries also acknowledged a need for participatory options—such as those that existed face-to-face in regular library programs pre-pandemic. One library started a program where young people could upload their own stories, poems, or art on a website (Ordsækælv¹, 2020), and this content was subsequently compiled into an eBook - an amazingly creative output of the pandemic. Libraries in Germany provided multiple participatory options, such as writing competitions and a letter writing competition at the Potsdam State Library.

[SLIDE 13]

In Australia, two librarians from the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created a digital *Paintings from the Collection* exhibit, in which paintings were chosen and described by children (State Library, 2020). The narrations are both informative, and very child-friendly, setting a precedent for future projects, even ones that could be done from home, and the interdisciplinary and collaborative project combines multiple skills. For example, a ten-year-old girl called Georgia writes:

I chose this picture because in class we were learning about the First Fleet and I was really interested. Most of the people in this picture are officers, but it's not telling the whole story. If I had a paintbrush, I would add the other ships and convicts, the 191 women, 568 men and 13 children convicts, who had been suffering in horrendous conditions on the First Fleet. The seas had been rough, and the convicts were very sick because they were not treated well. It would take a long time to paint all of those people into the picture. The Founding of Australia. By Capt. Arthur Phillip R.N. Sydney Cove, Jan. 26th, 1788

In Bulgaria, formerly physical events migrated to digital environments. Traditional events with poets and writers, such as a Poetry without Quarantine event, and Children's Book Day, that under usual times would have been held face-to-face, moved to social media sites such as Instagram and Facebook. (EDLIBA, 2020).

¹ "Ordsækælv" is a play on words. "Jordsækælv" is the Danish word for earthquake. "Ordsækælv" means "word-quake."

Social Media

Social media remained an important way to reach library patrons. Italian librarians curated lists of contacts with authors and illustrators for their young patrons. Norwegian librarians stayed in touch with patrons via social media as they continued to develop digital services during the pandemic. And German librarians stayed in touch with their young patrons as they posted pictures of themselves working from their home offices, offering glimpses into their lives beyond the library.

Complementary Services: Take-out Options (Denmark)

While libraries were closed to the public, Little Free Libraries popped up around Denmark. These were more of a community-based project, with people sharing their own books. As Danish librarian (and CYA member) Søren Dahl-Mortenson wrote, anticipating re-opening in May 2020: “I expect to see less focus on borrowing books, and more focus on events like storytelling, music, theater, meeting, and especially, social interaction.” Clearly, the social and interactive components of what libraries offer are most difficult to replicate online, and it goes to show that beyond supplying materials and access to inform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s that libraries play in our society is as community anchor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libraries are where people come to access information, but also to participate in cultural events, work, study, get homework help, use computers, access the Internet, get help writing resumes or applying for jobs, etc. The pandemic has highlighted libraries’ role as that critical third space in their communities. But during this time, libraries took on other key community roles, which will be described next.

[SLIDE 14]

Pivoting: New kinds of library service

In many countries, librarians are civil servants. In both Germany and Norway, as libraries shut down, some librarians worked from home, while others were deployed in other areas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example, IFLA C&YA member Benjamin Scheffler described working information hotlines. In some places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in Los Angeles, librarians were asked (Los Angeles Times, 2020) to perform contact tracing, and in Phoenix, Arizona, which does not have a public health department, librarians were asked to assist with coronavirus testing (Business Insider,

2020). According to the EBLIDA report (EBLIDA, 2020), librarians in Finland also performed social services in their communities, especially concerning the elderly, who were reached via phone-call-storytimes. Finnish librarians also in some cases delivered food instead of books to those in need.

[SLIDE 15]

Making Masks

The Martynas Mažvydas National Library of Lithuania worked with over 50 public libraries in Lithuania and the Robotics School to produce 3-D printed face masks for healthcare workers, and volunteers and representatives of other professions working in high-risk areas (EBLIDA, 2020). Conveniently, in 2019, fifty-eight 3-D printers had been purchased for Lithuanian public libraries, but at that time, no one could have envisioned that they would be used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Portuguese, French, and Irish libraries were also integrated into national health programs during the crisis. In Ireland, libraries donated equipment (including 3-D printed face shields) to hospitals, and offered online lectures and workshops together with mental health services, delivered care boxes with reading material to vulnerable community members, and created oral history and online projects in order to archive the unusual times we are living under. As in Arizona, Irish librarians worked to conduct contact tracing of Covid-19 cases. What was really special is that “The Irish government has recognised the increasing demands on librarians and libraries; in a state of the nation address on St Patrick’s Day, the Irish Prime minister, Leo Varadkar, specifically mentioned librarians together with the news that additional funding for e-books would be allocated due to unprecedented demands” (EBLIDA, 2020). With the exception perhaps of operating 3-D printers, none of these services align with the training that librarians receive as part of their educational preparation for working as librarians. But it certainly shows that library work is service work, and that librarians have to be quick to pivot to serve their communities in highly unexpected ways.

[SLIDE 16]

Libraries in the post-pandemic world

Just as this conference has gone virtual, it is likely that, post-pandemic, many conferences will at least have virtual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future. While

face-to-face conferences allow for the kind of networking that can build careers, for example, you might meet a future boss or colleague over lunch or dinner, or find collaborators on future projects at a coffee break, virtual conferences allow participation by those who otherwise would not be able to attend because of lack of funding, or job and family commitments that do not allow for travel. We also have to seriously consider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global conference travel. By creating alternative ways to participate, we contribute to sustainability.

What will be key to the success of libraries going forward, is an ability to listen and learn from community members, identify what is needed, and then quickly pivot to provide those services. Part of being able to do these things is making sure there is on-going funding for library budgets. The EBLIDA report identified financial challenges already faced by libraries:

“Library budgets were severely strained by the long-term effects of the 2008-2009 financial crisis. In some European countries, libraries have not yet reached pre-2008 financial levels. If librarians do not start taking action, administrators and politicians will play a key role in the post-Covid-19 age with their usual glossary of restructuring, core investments, financial cuts and pruning non-essential library branches” (EBLIDA, 2020).

It is up to all of us to advocate for library funding. What will happen to e-lending post-pandemic? How will libraries and publishers work together to provide access in communities, while coming up with mutually acceptable fees? Will publishers continue to provide flexible options to securing copyright, for example for digital storytelling? What about issues of digital divide? How can libraries support access for all and national broadband policies? One thing is for sure: Digital technologies are here to stay. Libraries around the world need the resources and the training necessary to best serve their patrons, and such training must include issues of copyright, data security, online safety, and more.

There is also so much that remains unknown about the pandemic--when will it end? We would all like to know that. When will it be safe to resume face-to-face activities? How will this impact the physical space of libraries, as well as library design?

As of this writing, schools across the United States are beginning to open for the fall, but what that means differs widely. Some schools, such as one in the state of Georgia,

are opening as they would in any year, with little consideration to the pandemic which continues to rage across the US. Other districts, such as the city of Chicago, have opted to go 100% online. “Their goal is still to get a computer or tablet and high-speed internet access to every child who needs it, including a pledge to provide free internet to 100,000 students through a public-private partnership called Chicago Connected” (Chicago Tribune, 2020). As more students will be online this fall, the screen time debates from the pre-covid-19 era need to be re-examined for the post-covid-19 era.

[SLIDE 17]

In the post-pandemic era, a time we are all looking forward to, by continuing to provide access to technology and educational resource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 world’s library community has an opportunity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2020)--and that is certainly a goal worth pursuing.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Gam sahm ni da!

References

- Al-Arshani, S. (2020, July 8). Librarians and other public employees in Phoenix are being asked to help with coronavirus testing because the city doesn't have a health department. *Business Insider*. Retrieved from: <https://www.businessinsider.com/librarians-being-asked-help-coronavirus-testing-phoenix-2020-7>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0). Covid-19 recovery. Retrieved from: <http://www.ala.org/tools/covid-19-recovery>
- Council on Communications and Media. (2016). Media Use i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The Officia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38(5). Retrieved from: <https://pediatrics.aappublications.org/content/138/5/e20162592DOI>: <https://doi.org/10.1542/peds.2016-2592>
- Croatian Library Association. (2020). Resources. Retrieved from: https://padlet.com/hkdrustvo/knjiznicne_usluge_na_daljinu
- D’Oro, R. (2020, April 28). “Storybooks and radio connect Homer children isolated by

coronavirus.” Anchorage Daily News. Retrieved from:

<https://www.adn.com/alaska-life/2020/04/28/storybooks-and-radio-connect-homer-children-isolated-by-coronavirus/>

- EBLIDA Secretariat, (2020). A European library agenda for the post-Covid 19 age (DRAFT). Retrieved from:
<http://www.eblida.org/Documents/EBLIDA-Preparing-a-European-library-agenda-for-the-post-Covid-19-age.pdf>
- IFLA, Section on Libraries for Young Adults. (2020, April). *Newsletter April 2020: Children's libraries during Corona Pandemic*. Retrieved from
<https://www.ifla.org/node/93044>
- Karanteket Digitale Bibliotektilbud. (2020). Retrieved from: <https://karanteket.no/>
- Mangen, A., Walgermo, B.R., & Brønnick, K. (2013). Reading linear texts on paper versus computer screen: Effects on reading comprehen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8, 61-68.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and Fred Rogers Center (2012). Technology and interactive media as tools in early childhood programs serving children from birth through age 8. *Every Child*, 19:18.
- Ordskaelv. (2020). Ordskaelv Lockdown. Retrieved from
<http://www.ordskaelv.org/lockdown>
- PEW Internet. (2018). Young Children, New Media, & Libraries. Retrieved from:
<https://www.pewresearch.org/internet/fact-sheet/internet-broadband/>
- Penguin Random House. (2020). Penguin Random House Open License. Retrieved from:
<https://www.penguinrandomhouse.com/penguin-random-house-temporary-open-license/>
- Pineda, D. (2020, July 31). As COVID-19 cases surge, L.A. librarians join the ranks of contact tracers. *Los Angeles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0-07-31/la-librarians-becoming-contact-tracers>
- State Library New South Wales. (2020). *Kids Audio Guide*. Retrieved from:
<https://dxlab.sl.nsw.gov.au/kids-audio-guide/>
- United Nations. (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trieved from: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주제발표 / 발표3

비대면 시대,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

임여주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비대면 시대,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은

임여주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코로나’라는 낯설었던 단어를 이제는 거의 매일 발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은 너무나 커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구석구석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선선한 바람이 부는 6월의 제주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13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연사를 초청하고 장소를 섭외하고 연사들이 제출한 강연 초록을 정리하며 심포지엄 준비에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시작되며 심포지엄은 순연되었고, 대체 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 세미나’가 온라인 생중계의 형식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이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신 선생님들 모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관이 휴관 상태에 들어가면서 오랫동안 공들여 온 행사가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되고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던 프로그램 또한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상 상황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국내외의 많은 사서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외의 도서관에서 제공해 온 대체서비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 도서관 대체서비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전국 1,414개 공공도서관 중 871개관(76.3%)에서 휴관 중 대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서관의 77.6%인 885개관에서 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도서관, 드라이브스루, 도서배달, 예약대출, 지역서점 희망도서 대출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체 도서관의 61%인 696개관에서는 전자책, 온라인콘텐츠, 오디오북, 녹음도서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도서

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35%에 해당하는 396개관에서는 대출자로 반납 자동연기, 사이버 전시, 온라인 강의 제공 등의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 학교도서관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오던 독서동아리 모임과 독서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체서비스 중 어린이 · 청소년서비스와 관련된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온라인 작가와의 만남]

- 초등학교 3-4학년 15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작가와의 만남 진행 예정. 강의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강연 참여 링크 발송. 강연 영상 무단 촬영과 녹취, 무단 배포 금지 조건. / 아이누리 작은도서관

[온라인 그림책 전시회 & 독서 프로그램]

- 그림책 온라인 전시회 및 독서퀴즈 (출판사에서 그림책 일부 PDF 자료와 해당 그림책의 독후활동 자료를 지원받음),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프로그램의 온라인 진행 (출판사에서 작가가 읽어주는 그림책 영상 콘텐츠를 지원받고, 이용자들에게 독후활동 미션을 사진으로 제출받음. 추첨을 통해 상품 제공) / 울산 동부도서관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한 프로그램]

- 어린이 우주탐험대 프로그램을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 활동으로 전환. 매주 홈페이지 게시판에 우주와 천문학 관련 주제를 제시하면 어린이들이 댓글을 통해 토론에 참가함. 일주일 후 우주 전문가가 내용을 종합하여 과학 지식을 알려줌.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글쓰기 프로그램]

- '오름이네 e-소설을 부탁해' 밴드 개설. 담당 사서가 글쓰기 주제와 등장인물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이 릴레이로 글을 창작하여 소설 한 편을 완성하는 프로그램. / 성남시 해오름도서관

[독서 수업]

-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독서 수업. 총 17차시. 클래스팅(classing)에 수업자료를 업로드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시청한 후 문제를 풀고 댓글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 저작물과 저작권법 교육, 책의 구조와 명칭, 3학년을 위한 올바른 독서 등의 주제를 다룸 (구은아, 2020). / 인천 용학초등학교

[온라인 독서모임]

- 전자책 무료 콘텐츠, 학교에서 구독 중인 전자책과 학술정보 서비스의 이용과 활용 방법을 자기 주도 독서활동 시리즈 콘텐츠로 제작해 문자, 학교 홈페이지, 학생회 SNS,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함. 독서토론 활동과 독서 상담을 온라인으로 진행 (박민주, 2020). / 경기 의정부여고

[북 큐레이션]

- 동덕여대 동아리 <사심가득>과 협력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치기 대작전!’ 이라는 주제 아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책 목록을 만들고 소개함. / 성북길빛도서관

해외 도서관들도 전자책, 오디오북, 영화, 스트리밍 TV 등을 대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서가 스토리타임, 북토크 등의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송하는 등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분과(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 Section)에서는 2020년 4월 뉴스레터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국의 어린이·청소년서비스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총 12개국에서 보고한 서비스 현황 중 눈에 띄는 것을 몇 개 뽑아보았습니다.

[도서관을 테마로 한 보드게임(Library-Themed Board Game)]

- 사서가 기본적인 게임 디자인을 만들고 이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완해 나감.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이용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동으로 함께 완성해가는 게임. 완성된 게임은 인쇄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각자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함. / Rijeka City Library, Croatia

[Covid19 책 만들기 프로젝트]

- ORDSKAELV <http://www.ordskaelv.org/lockdown> 웹사이트에 2000자 이내의 짧은 글이나 시를 써서 제출하면 그 글을 모두 모아 책으로 발행함. 주제는 자유. 글쓴이의 개인정보를 받는 것이 디폴트이지만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음. / Denmark

[어린이들의 불안한 감정 돌보기]

- <First Aid for Feelings: A workbook to help kids cope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감정을 위한 응급처치: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는 워크북)> 예일 아동 연구센터(Yale Child Study Center)와 스킨라스트(Scholastic) 출판사와의 협력으로 만든 책. 어린이들의 불안한 감정에 초점을 맞춤. 어린이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작업이 소개됨.

[독서지도를 돕는 웹사이트]

- ALLE LAESER <https://www.xn-allelser-n0a.dk/>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어 자녀의 독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을 위한 독서지도 방법 안내 / Denmark
- DiscoverReads <http://www.nlb.gov.sg/discoverreads/> 초중고등학교 수업이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학교 수업의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한 독서지도 웹사이트 제공. 양육자와 교사를 위한 독서지도법,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실내 활동 팁,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동,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퀴즈와 인쇄 가능한 DIY 키트 등 다양한 자료가 제공됨. /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도서관 공동체]

- 인스타그램으로 사서의 홈 오피스(재택근무)를 소개함. / Germany
- 물리적인 공간에서 만날 수 없어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사서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이용자들이 큰 만족감과 위안을 얻음. 전문 스토리텔러만큼 완벽하지 않아도 어린이들은 익숙한 사서가 진행하는 비디오 스토리텔링을 훨씬 더 선호함. / Italy

[그밖에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

- 유튜브, 인스타그램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팟캐스트 등을 통한 온라인 스토리타임 (그림책, 시, 옛이야기 등) - 사서, 작가, 유명인 등이 진행.
- 온라인 독서클럽
- 인쇄 가능한 컬러링 북
- 학습 지원

2. 도서관 어린이 · 청소년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듯 재개관 후에도 도서관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전의 도서관 서비스에 익숙한 사람들, 여전히 사람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이용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도서관의 정체성 모두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소통에 가장 익숙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 청소년 서비스의 경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온라인 서비스

a) 기술적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우선, 그 서비스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고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열린 태도가 중요합니다. 장비와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좋을수록 더욱 매끈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은, 특히 우리가 서비스하는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익숙하고 친근한 얼굴인 사서 선생님을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는 것에 기뻐합니다. 조금 서투르고 다소 영성한 구성이더라도 사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선생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장비가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명이나 마이크 없이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영상을 촬영한 뒤 키네마스터(KineMaster)나 블로(VLLO)와 같은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단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진행의 경우 줌(Zoom), 인스타그램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과 녹화방송 모두를 지원하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PRISM Live Studio)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미 이 프로그램들을 한 번쯤 이용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생각보다' 다루기 쉽습니다. 아직 이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 학기, 처음으로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했을 때 너무나 막막하고 겁이 났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것저것 놀러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니 세가 과하게 겁을 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이용자 친화적입니다. 결국은 이용자가 활용하기 쉬운 것만 살아남게 되니까요.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지금부터 한 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도서관에서 촬영한 영상, 특히 강의 영상을 도서관들끼리 공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를 진행한 강사가 거기에 동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온라인 강의 강연자와의 계약서 양식, 영상 업로드 기간 및 공유에 따른 강연료 산정 기준 등의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강의에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청중의 참여도와 몰입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사 혼자 말하는 강의보다는 청중의 질문을 받고 청중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의 강의를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작가와의 만남 같은 경우 참가자들이 작가에게 질문하고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경험은 소중한 것입니다. 작가 입장에서도 독자들과의 반응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 중에는 참가 인원을 제한하여 독자와 작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뿐 아니라 스토리타임이나 만들기 수업 등의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해보아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소한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사서의 얼굴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학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초중고 교사들 중에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시간 수업 도중 교사의 얼굴이 나온 화면이 캡처되어 학생들의 익명 채팅방이나 게시판 등에 우스갯거리로 공유된다거나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에듀프레스, 2020). 얼굴 공개에 대한 우려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시간 화상수업을 진행할 경우 여학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거나 카메라 방향을 다른 사물에 맞춰놓거나 혹은 아예 카메라를 꺼놓는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자신의 방이 공개되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참가자들, 그리고 진행하는 사서와 강사가 이 방식에 얼마나 안전함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서와 이용자 모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참여자 모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b)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자에게 직접 다가가기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서비스의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SNS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도서관 홍보와 정보서비스가 부족 늘었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새로 계정을 만들거나 이전부터 갖고 있던 계정에 더 많은 자료를 포스팅하는 도서관이 많아졌습니다. 도서관 계정에 좋은 콘텐츠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며 감탄한 적이 많았습니다. 휴관 상태에서도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서들의 노력이 빛나는 공간과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콘텐츠 중 하나는 은평뉴타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대책 있는 사서들>에서 2020년 3월 3일에 업로드한 방송 ‘65화 - 긴급 휴관특보 NEWS’였습니다. ‘도서관은 휴관 중에 어떤 일을 할까?’, ‘도서관의 소리를 찾아서’, ‘새책 사서 인터뷰’,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날 방송은 도서관이 휴관 중임에도 도서관 직원들은 일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청취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도서관은 휴관 중에 어떤 일을 할까?’에서는 진행자가 도서관의 모든 부서를 찾아가며 도서관 직원들을 인터뷰하였는데, 자부심과 책임감이 가득 느껴지는 직원들의 목소리에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날의 방송을 들으며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자들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음향을 들려주고 상황을 추측하게 하는 ‘도서관의 소리를 찾아서’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척 좋아할만한 한 콘텐츠여서 더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어린이자료실 사서 선생님들이 훼손된 학습만화를 끝없이 보수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많은 분들의 손을 거친 책을 한 권씩 소독기에 넣고 소독하는 소리입니다.”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10대는 팟캐스트를 주로 듣는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대책 있는 사서들>의 ‘긴급 휴관특보 NEWS’ 방송을 들은 10대 이용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는 10대도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도서관 계정에서 10대 이용자를 주요 타깃층으로 하여 만든 게시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하는 홍보 포스터들은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보다는 그들의 양육자를 내포독자로 삼고 있는 것 같아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도서관 계정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홍보물이 제 경험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느라 이전보다 책을 덜 읽게 되니까요. 다녀야 하는 학원의 수도 많아져서 도서관에 올 여유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10대들은 인터넷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더욱 재미있는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이 찾는 ‘재미있는 것’ 중에 도서관 콘텐츠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뉴닉(NEWNEEK; www.newneek.co)이라는 뉴스레터 미디어가 있습니다. “힙, 재미, 진정성을 추구합니다.”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이 미디어는 “밀레니얼 세대가 세상을 이해하고 고민하려면, 그들의 일상에 맞는 뉴스의 형식과 문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뉴스레터”(공감채용 더팁스, 2019)입니다. 뉴닉의 캐릭터인 고슴이가 전해주는 뉴스는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진지합니다. 뉴스를 전달하되 타깃층인 밀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힙’과 ‘재미’와 ‘진정성’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뉴닉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입니다. 뉴닉은 구독자를 분석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반영합니다.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은 도서관에서도 늘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미디어 플랫폼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는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청소년 이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Elaine Meyers와 Virginia A. Walter(2003)는 <Teens and Libraries: Getting it right>라는 책을 통해 성공적인 청소년 서비스를 위해서는 청소년 이용자와 사서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벌써 출간한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책이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2)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도서관이 온라인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이용자와 만날 때 자연스럽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가장 큰 화두는 ‘가짜뉴스’ 문제입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가짜뉴스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수많은 가짜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 정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어떤 마스크를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써야 하는지, 누가 바이러스에 더 쉽게 감염되는지 등등 수많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한 것은 성인만이 아닙니다. 2020년 4월 29일 질병관리본부가 준비한 <코로나19 어린이 특집 브리핑>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관해 궁금했던 점들을 질병관리본부에 질문했습니다. 그날 어린이들이 발표한 질문들은 어른들의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어른들이 했던 질문들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어른보다 낮은가요?”, “친구가 코로나19에 걸렸었다는데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 안 되나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는 언제쯤 나올까요? 만들려면 정말 2년 이상 걸리나요? 백신이 개발되면 독감 예방접종처럼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모두 <코로나19 어린이 특집 브리핑>에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한 질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어린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불안하고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어린이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상담수는 양육자에게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육자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주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질문할 양육자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 나설 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서입니다. 다양한 이용자를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사서의 핵심 업무이자 역량이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 교육과 정보 이용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용자와 한 공간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용자가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코로나19에 관하여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서와 도서관들이 있었습니다.

월간 문헌정보(@monthly_library)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에 관련한 국내 동향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의 공포는 나날이 커지고, 이러한 심리를 파고드는 가짜뉴스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월간 문헌정보는 문헌정보학도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회현상을 최대한 왜곡없이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 지역의 도청,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발표하는 공식 자료를 요약하여 출처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홈페이지에 <팩트 체크! 코로나-19 정보>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신속·정확한 정보를 수집, 파악, 제공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마포구민 누구나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감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라는 안내문은 위기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요약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 코로나-19 정보>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도 동아사이언스, 마포구보건소, 기초과학연구원, 서울시Covid심리지원단 등 과학과 의학,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신뢰도 높은 정보가 정확한 출처와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게시물이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자에게도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제공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서가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검색했는지, 왜 특정 기관(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정보는 채택하고 다른 기관 혹은 매체의 정보는 채택하지 않는지, 출처를 따로 표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출처의 표기 양식은 무엇을 따르는지 등등 정보의 수집과 해석, 포스팅(혹은 출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옳은 정보와 틀린 정보를 구분할 줄 알며,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은 학교 도서관 협력 수업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통해서도 직간접적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어떤 어린이들에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뿐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정보일 수 있습니다. Clara M. Chu(1999)는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1.5세대 혹은 2세대 어린이들이 정보 중재자(mediator)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간 나라의 언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양육자는 생활을 위한 필수 정보를 스스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양육자보다 언어가 유창한 어린이들이 중간에서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이주배경청소년 또한 가정 내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기관 중에서는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도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로 된 정보에 비해 그 양과 질은 한참이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 내에서 혹은 이주민 커뮤니티 내에서 정보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이와 같은 정보서비스는 도서관의 의미와 정체성,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

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만족스럽게 경험한 어린이들은 훗날 어른이 되어서 도서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사회에서 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3)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

2020년 6월 15일 도서관 메일링 리스트에 “[도서관을바꾸는토끼들 입장문] 코로나 시대의 공공도서관,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에는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점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많은 도서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균소독제의 유해성 정보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은 전혀 듣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안전조치나 보호구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느 구립도서관은 매일 오전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 방역을 실시합니다. 방역교육도 없었고 살균제 사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며 직원들을 위한 안전 보호 장치도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방역 작업이 끝나고 나면 소주를 한 병 들이킨 것처럼 목구멍이 따갑고 코에서는 냄새가 가시지 않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자료실에도 엄청난 양의 살균제를 살포합니다. 과연 이것이 직원과 이용자들에게 안전한지 의문입니다.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적되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바꾸는 토끼들(서울시공공도서관직원연대 준비모임), 2020)

이 글에 나온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겪은 도서관 직원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도서관 여건이 허락하여 전문소독업체에 방역을 맡긴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외 도서관 협회 등에서 발행한 코로나19 대응 도서관 지침에는 무엇보다도 도서관 직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20; IF_DO, 2020; OCLC, 2020). 도서관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직원 한 명의 감염이 여러 이용자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직원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도서관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어른이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학습 자료가 됩니다.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안전 뿐 아니라 직원의 안전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모든 업무 뒤에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사람’의 생명은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차별이 아니라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자란 어린이는 타인을 존중하며 스스로 존중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9)에서 발표한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은 “도서관이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서 개인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사람과 삶이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2016)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더불어 사는 사람,” 즉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도서관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방법,

사람과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주로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 · 청소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중심 서비스일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듯 독서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책이 아닌 다양한 미디어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배우고 소통하고 표현하는 것의 근간은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문자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문자를 기반으로 사회를 이해합니다.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의 저자 중 한 명인 김성우는 “언어를 매개로 해서 세계를 로딩하고 편집하고 그걸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성찰하고 나눌 수 있는 힘”(2020, p. 100)을 아직은 영상이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의 저자 니콜라스 카는 인터넷이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올수록 우리의 주의 집중력은 더욱 짧아지고 사고는 단순해질 것이며, 그럴수록 긴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 통찰력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고 신념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책을 통한 배움과 성장에 중심을 두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인식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소통 방법을 익힐 수 있다면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구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좋은 몫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 공감채용 더팁스. 2019-08-26. 뉴스레터 아이디어로 6억 투자 받은 20대 여성 창업가, 뉴닉 김소연&빈다은. <http://naver.me/GW7JxwJo>
- 교육부.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질의 · 응답 자료.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62381&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302&opType=N>
- 구은아. 2020-08-11. [사서교사의 수업노트] (6) 비대면 독서교육은 저작권 교육부터. 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39>
- 김성우 & 엄기호. 2020.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 따비.
- 니콜라스 카. 2011.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청림출판.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2023 (요약본).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080
- 문화체육관광부. 2020-04-01. 코로나-19 대응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현황.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486?currentPage=1&title=¬iType=>

- 박민주. 2020-07-07. [사서교사의 수업노트] (1) 코로나19, 집으로 '랜선 School Library'를 가져오다. 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31>
- 도서관을 바꾸는 토끼들(서울시공공도서관직원연대 준비모임). 2020-06-15. [도서관을바꾸는토끼들 입장문] 코로나 시대의 공공도서관, 안녕들 하십니까? 도서관메일링리스트. http://www.domeri.or.kr/DMR_mailingList/Mailing_View.asp?g_idx=26096&Page=4
- 에듀프레스. 2020-03-30. 온라인 수업, '얼굴공개 악용될까' 불안에 떠는 여교사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143>
-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20. Checklist for reopening libraries. <https://read.alia.org.au/australian-libraries-responding-covid-19-checklist-reopening-libraries>
- bibliotheca. 2020. Libraries around the world prepare for a new normal. <https://www.bibliotheca.com/reopening-libraries-after-covid-19/>
- Chu, Clara M. "Immigrant Children Mediators (ICM): Bridging the Literacy Gap in Immigrant Communities," *The New Review of Children's Literature and Librarianship*, 5: 85-94, 1999.
- IF_DO. 2020. Covid-19 Safer Libraries: Helping public places to reopen safely. <https://www.librariesconnected.org.uk/resource/covid-19-safer-libraries-guide>
- Meyers, E., & Walter, V. A. 2003. *Teens and Libraries: Getting it Right*. ALA Editions.
- OCLC. 2020-06-25. Public libraries preparing to reopen: Examples from the field. <https://www.webjunction.org/news/webjunction/preparing-to-reopen.html>



사례발표 / 발표4


SNS를 활용한 비대면 독서프로그램 운영 사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

이용운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사서

SNS를 활용한 비대면 독서프로그램 운영 사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방탈출 프로그램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사서 이용운

목차

1. 추진 배경
2. 비대면 방탈출 프로그램 기획
3. 비대면 방탈출 프로그램 운영
4. 참여후기
5. 운영후기
6. 제언

1. 추진 배경

-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 독서프로그램 분과위원 회의(2020.4.)
 - 연구주제와 활동 방안 논의
 - 참여자의 능동적인 활동, 방탈출, 독서라는 키워드로 프로그램 기획
- 도서관 비대면 독서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제한된 상태
 - 도서관 서비스 대안을 제시 해야 하는 시대적인 상황에 직면

= SNS를 활용한 비대면 방탈출 프로그램 기획

1  동북문화정보도서관

□ 동북문화정보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 동북구립도서관 팟캐스트 북팟 영상 서비스
- 문화가 있는 날 음악회, 낭독회 실시간 방송 서비스
- 실시간 온라인 강의(실습 Kit 제공)



2  동북문화정보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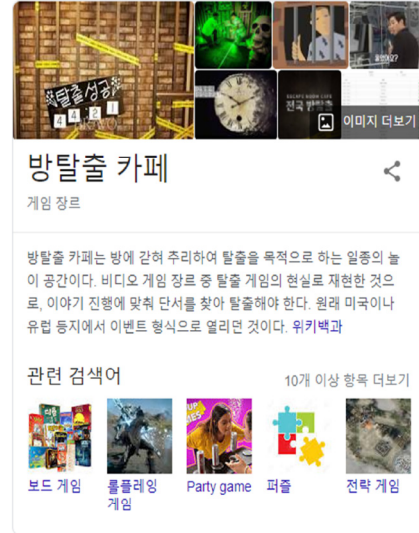
2. 비대면 방탈출 프로그램 기획

□ 방탈출이란?

- 방에 갇혀 추리하여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

□ 기획의도

- 20, 30대에게 익숙한 방탈출 개념 도입
- 도서관에 관심이 없는 젊은 세대를 공략
- 실시간으로 경쟁하는 **긴장감**
- 각 단계를 넘어가는 **성취감**
- **소통**을 할 수 있는 채팅방



출처 :Google 검색

□ 제작 시 고려사항

- 반드시 **책**을 기반으로 할 것
- 책을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할 것
- 처음 몇 문제는 **풀이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할 것
- 책에서 알리고 싶은 **키워드** 하나는 반드시 인지시킬 것
- 참여자에게 알리고 싶은 **책의 내용을 인용**할 것
- **대화가** 가능한 소재로 문제를 만들 것
- 경쟁을 추구하되 **격차가 심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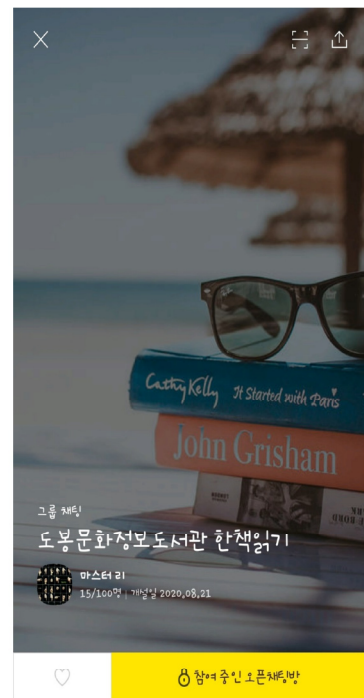
3. 비대면 방탈출 프로그램 운영

□ 개요

- 모집인원 : 12명(고등학교 1, 2, 3학년)
- 운영 시간 : 1시간 30분
- 운영 인력 : 사서 2명(50대, 30대)
- 주제 : 가족, 장애인
- 선정도서 : 발버등치다(박하령)
- 줄거리 : 청각장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고 자신의 처지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여고생 이야기이자, 가족이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부모와 개인의 인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딸 사이의 이야기.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하지 않는다. ▶가족은 신성하나 가족주의는 불온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서

□ 운영방법

- 오픈 채팅방 입장화면 전체가 문제이자 정답
- 비밀번호는 영어 소문자 또는 숫자로 이뤄진 4~8자리
- 각 방마다 순위를 정하며, 참여자가 모두 입장하면 문제와 관련된 토론, 대화 유도
- 대기방에 모든 사람이 입장한 후 다음 방의 힌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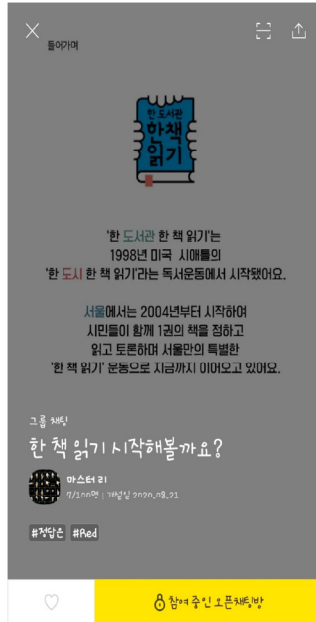
□ 1, 2 단계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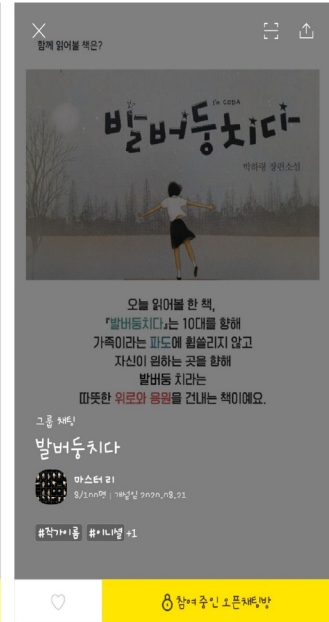
- 반드시 책을 기반으로 할 것
- 책을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할 것

<내용>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소개
- 주제 도서 소개
- 앞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적응하도록 쉽게 구성



정답 : city



정답 : phr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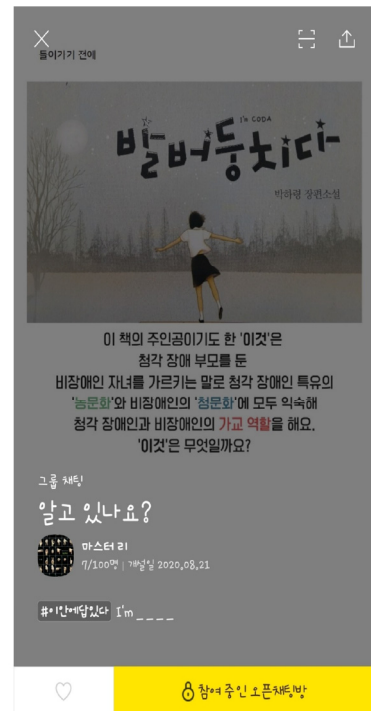
□ 3단계

<고려사항>

- 책에서 알리고 싶은 키워드 하나는 반드시 인지시킬 것
- 책을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할 것

<내용>

- 청각장애인 사이에서 태어난 비장애인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의 개념을 인지시키는 문제
- 책을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표지에 삽입된 문구를 사용하여 정답을 유추할 수 있게 함



정답 : coda

□ 4단계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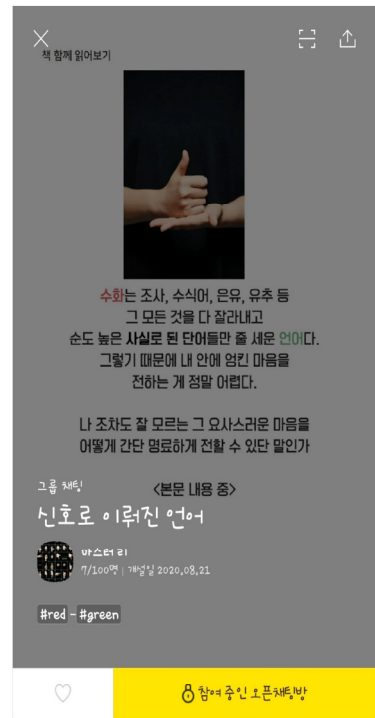
- 참여자에게 알리고 싶은 책의 내용을 인용할 것

<내용>

-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사춘기 여고생의 마음을 수화로 부모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는 대목

<질문>

- "너. 정상인. 우리. 다르다." 이 문장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 수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 5단계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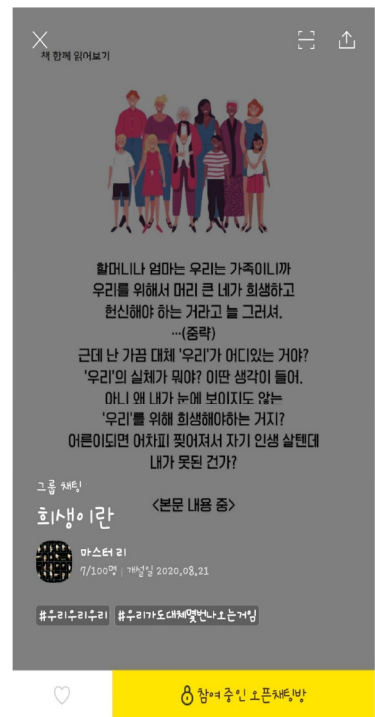
- 참여자에게 알리고 싶은 책의 내용을 인용할 것

<내용>

- 대가족의 장녀로 태어난 주인공의 친구의 이야기
- 동생들이 너무 많아 항상 희생을 강요 받았던 이 인물이 우리 라는 집단 안에서 '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

<질문>

- 가족을 위해 양보했던 경험이 있나요?
- 가족과 개인 사이의 행복의 방향이 다르다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나요?



□ 6단계

<고려사항>

- 참여자에게 알리고 싶은 책의 내용을 인용할 것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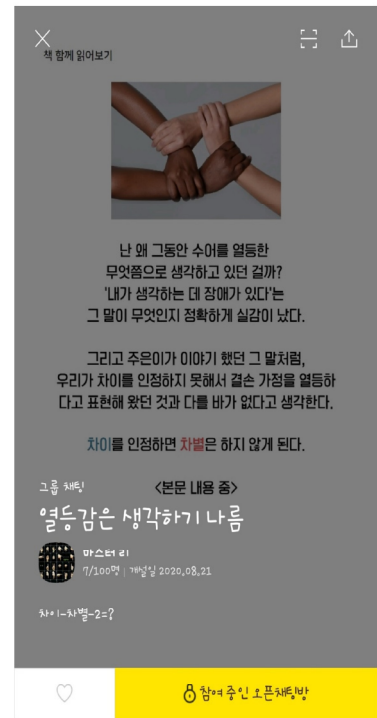
- '코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꼈던 주인공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고, 자신이 남들과 단지 '다를 뿐'이라는 점을 자각하면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대목

<질문>

-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걸 극복한 경험이 있나요?
-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 동봉문화정보도서관

정답 : star



□ 7단계

<고려사항>

- 참여자에게 알리고 싶은 책의 내용을 인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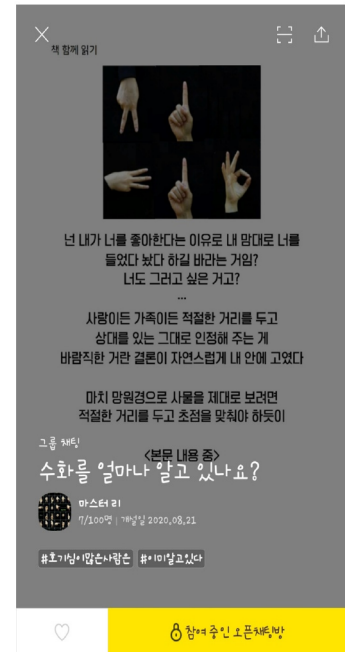
<내용>

-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인공이 깨닫는 대목

<질문>

- 가족, 친구, 이성 간의 적절한 거리두기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지화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12 동봉문화정보도서관



함께 풀어볼까요?

5. 운영후기

- 처음 문제에 적응시키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평균 입장 시간 4-5분, 1단계 입장 시간 **10분**)
→ 시작 문제 난이도를 더 직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대화를 나누는 게 쉽지 않았다
→ 닉네임 입장을 유도하여 익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참가자를 10명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문제 화면이 모두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 사전에 최대한 여러 기종으로 테스트하고, 중요한 부분을 화면 가운데로 최대한 모아 제작한다.

- 온라인 강의 형태보다는 채팅을 활용하는 게 소통이 더 쉽다.
→ 청소년들은 전화 통화 보다는 채팅이 더 편하다.
-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호응을 유도하기 좋았다.
→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는 매일 하는 것,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하는 독서프로그램은 처음 하는 것
- 사서는 진행만 하고 작가와의 대화를 추진해봐도 좋겠다.
-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 콘텐츠를 제작하는 동아리 운영이 가능하겠다.

6. 제언

□ 활용 형태

- 대면 강의 전 주제도서 맛보기
- 대면 강의 이후 마무리 퀴즈
- 작가와 온라인 대담
- 온라인 이벤트 활용

□ 제언

-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플랫폼 개발 필요(카카오톡 한계)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서관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공유하고 함께 제작할 수 있는 모임 및 지원 필요



사례발표 / 발표5

비대면의 시대, 움직이는 도서관: 도서관 영상으로 만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

허지현

부평구립부개도서관 사서

Untact

Library

Ontact



비대면의 시대 움직이는 도서관

도서관 영상으로 만나다

부평구립도서관
사서 허지현



Contents

비대면의 시대 움직이는 도서관

01

Untact

비대면의 시대, 도서관

Untact 시대의 도서관
위기는 기회 독서를 권하다

02

Library

움직이는 도서관

'1995' 고먼/ 신 도서관5법칙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03

Ontact

온라인으로 연결하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Ontact로 연결된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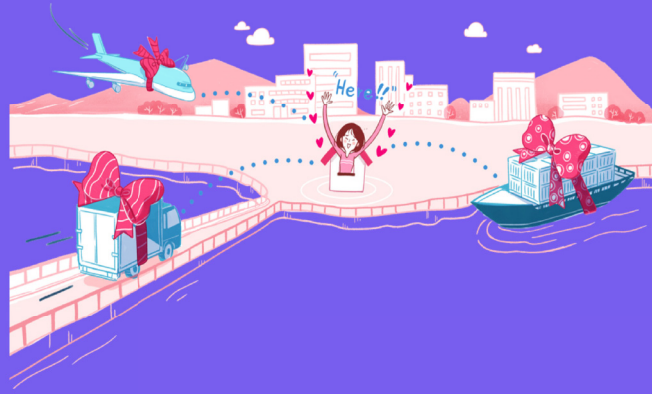


00

Intro

01. 비대면의 시대, 도서관

01



비대면(Untact)의 시대, 도서관

Untact 시대의 도서관
위기는 기회, 독서를 권하다



01

Intro

01. 비대면의 시대, 도서관-Untact 시대의 도서관



꾸러미 증정 # 비대면 프로그램
전통적 서비스 # 도서대출

Untact 시대의도서관

제공방식의 변형으로
전통적서비스를 제공

01

오늘의
마음처방전
도서관

2020 부평도서관 독서의 달 기념
2020.11.1(목)~11.15(목)

부개어린이도서관

유아코딩프로그램
큐비코체임
(교구대출프로그램)

부개어린이도서관

혼자서도 할어요
집콕메이커

부평구립도서관 유튜브

그림책과 오조봇
코딩놀이

02

**부개어린이
도서관
뮤음대출서비스**

코로나19 지역사정감염 확산에 따른

**도서예약
대출서비스**

부평구립도서관

03

**SMART
LIBRARY**

- 01** 독서매개체 증정형 or 온라인 프로그램
비대면으로 독서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
- 02** 통과형 도서예약대출서비스(지역 별 차등)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택배형 배달서비스
등 예약 후 도서 대출
- 03** 스마트 라이브러리, 예약대출기 설치
도서관,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 실물 도서대출



02

Intro

01. 비대면의 시대, 도서관-Untact 시대의 도서관

01



부개어린이도서관

유아코딩프로그램
큐비코체험
(교구대출프로그램)

부개어린이도서관

혼자서도 잘해요
집콕메이커

부평구립도서관 유튜브

그림책과 오조봇
코딩놀이

독서매개체 증정형 프로그램

1. 온라인예약형 : 꾸러미와 교구를 예약하고 사전 수령 후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진행
2. 독서관장형 : 도서관예약 대출 시 블라인드도서 추가대출 및 이벤트
3. 독후활동형 : 예약대출 시 독후활동 키트를 배부하고 SNS사진인증을 통한 상품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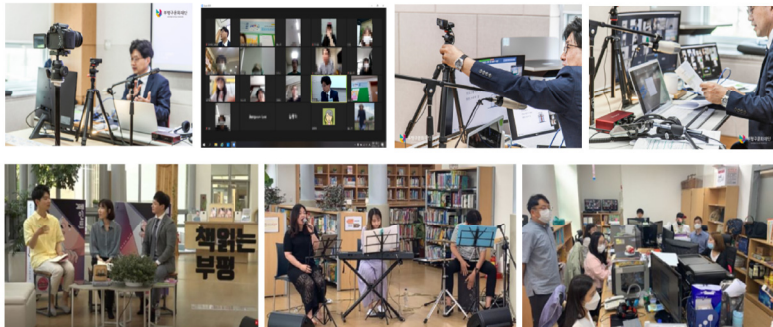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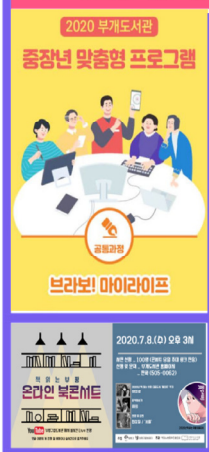
03

Intro

01. 비대면의 시대, 도서관-Untact 시대의 도서관

01

독서매개체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독서프로그램

1. 화상형 소통 : 비대면 독서프로그램운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수의인원이 직접 소통 하는 프로그램 기획
2. 플랫폼형 : 영상채널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며 오픈채팅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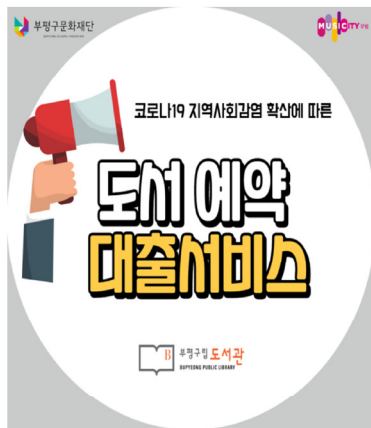
04

Intro

01. 비대면의 시대, 도서관-Untact 시대의 도서관

02

부개어린이 도서관 묶음대출서비스



도서예약대출서비스

1. 세트예약형 : 세트 구성된 묶음을 예약하여 택배 또는 도서관 문, 창문앞에서 드라이브or워킹스루 형태로 수령
2. 예약대출형 :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하루 전 예약하여 택배 또는 도서관 문, 창문앞에서 드라이브or워킹스루 형태로 수령
3. 상호대차형 : 상호대차를 예약, 택배 또는 도서관 문, 창문앞에서 드라이브or워킹스루 형태로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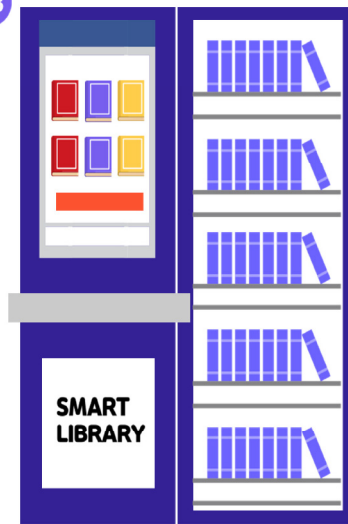


05

Intro

01. 비대면의 시대, 도서관-Untact 시대의 도서관

03



스마트 라이브러리, 예약대출기 설치

1. 스마트 라이브러리

기계에 탑재된 도서를 보일수있게 비치하거나 키오스크에서 목록을 GUI형태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빌릴 수 있도록 도서관 입구,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 비대면 서비스로 도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2. 예약대출기

도서관홈페이지나 앱을 사용하여 필요한 도서를 예약하면 상호대차 등을 통해 예약대출기에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빌릴 수 있도록 도서관 입구,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 비대면 서비스로 도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06

Intro

01. 비대면의 시대, 도서관-위기는 기회, 독서를 권하다

위기는 기회, 독서를 권하다 여가시간의 증대



노컷뉴스/2020.06.10/김선경 기자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코로나 19이후 여가시간 늘어'

20대(69.6%), 30대(67.6%), 40대(59.0%)가 여가시간 증가

여가시간 활용도 - 독서율 증가

+ 코로나 발생이전 - 지인들과 만남(51.5%), 집에서 TV나영화시청(29.9%)
여행(25.7%), 문화행사참여(22.9%)

코로나 발생이후 - 집에서 TV나영화시청(70.1%), 잠/휴식을 취한다(45.4%)
독서나 공부(32.5%), 실내운동(홈트레이닝21.4%),
모바일게임(20.1%)

- # 도서관 서비스의 정상운영 불가 (도서대출, 독서프로그램 진행불가)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독서문화진흥 불가

독서활동을 권장 할 수 있는 적기이자 기회



07

Intro

01. 비대면의 시대, 도서관-위기는 기회, 독서를 권하다



공무원 # B급감성 # 홍보
사과는 충주? # 언제부터?

위기는 기회 적극적 홍보효과

공무원이 무슨 홍보를?

초록창 충주시 포스터 검색결과



출처 : 스프스뉴스 SUBUSU NEWS 유튜브 채널

공공기관 홍보
충주시의 사례 - 홍보의 나비효과



08

Intro



공무원 # B급감성 # 홍보
사과는 충주? # 언제부터?

위기는 기회 적극적 홍보효과

공무원이 무슨 홍보를?

01. 비대면의 시대, 도서관-위기는 기회, 독서를 권하다



[인터뷰] 조남식'충주시, 특특 튀는 홍보로 3조원 이상 경제효과'

Photo | NEWS1 | NEWS

일자 | 2019-03-18 11:32 수요일, 2019-03-18 14:12



참여 본 기사

- 1. 3초만에 핵심만 전달하려고 노력
- 2. 영화 장면이나 유행어 패러디, 책 많이 읽어
- 3. 30초 안에 말하길 연습
- 4. 농담, 재미의 언어 사용
- 5. 시청률과 시청 언어, 풍산군
- 6. 주요 시장, 시청률과 시청률
- 7. 시청률에 맞춰 시청률 10%

CPBC/2019.03.18/김혜영 앵커

'충주시, 특특 튀는 홍보로 3조원 이상 경제효과'

- '3초만에 핵심만 전달하려고 노력'
- '영화 장면이나 유행어 패러디, 책 많이 읽어'
- 'B급 홍보로 3조원 이상 경제효과'
- '지방재정 기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수달공무원 '충주씨'... 유튜브 조회수 60만 회 돌파

Photo | 기사 | 기사

일자 | 2020-04-21 14:38 | 09:00



충북인뉴스/2020.04.21/최현주 기자

'수달공무원 '충주씨' ... 유튜브 조회수 60만 회 돌파'

- '충주시 유튜브 채널 '충주씨' 농산물 홍보 수달캐릭터'
- '충주사과, 충주고구마 등 농산물 홍보'
- 'SNS 충주시 B급감성을 이어받아 큰 관심'
- '사과하십소 뮤직비디오에 누리꾼 충주바이벌마케팅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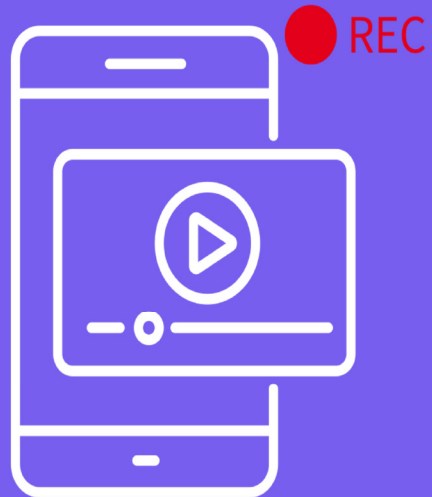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02

움직이는 도서관

'1995' 신 도서관 5법칙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 '1995' 고먼 / 신 도서관학 5법칙

'1995'

고먼(Michael Gorman)의 신 도서관학 5법칙

- 제 1법칙 : 도서관은 인류에게 봉사한다.
(Libraries service humanity)
- 제 2법칙 : 지식을 유통시키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고려하라.
(Respect all forms by which knowledge is communicated)
- 제 3법칙 : 봉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라.
(Use technology intelligently to enhance service)
- 제 4법칙 :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라.
(Protect free access to knowledge)
- 제 5법칙 :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라.
(Honor the past and create the future)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 '1995' 고먼 / 신 도서관학 5법칙

'1995'

고먼(Michael Gorman)의 신 도서관학 5법칙

- 제 2법칙 : 지식을 유통시키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고려하라.
(Respect all forms by which knowledge is communicated)
- 제 3법칙 : 봉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라.
(Use technology intelligently to enhance service)
- 제 4법칙 :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라.
(Protect free access to knowledge)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 '1995' 고먼 / 신 도서관 5법칙

2020년 OTT(OVER-THE-TOP) 모든것을 가진 매체

홍보? 콘텐츠? 지식전달? 아카이빙? 쉬운접근성?
모든 것을 가진 매체가 있다면 도전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 이용자 절반이 넷플릭스 등 동영상 서비스이용'

'방통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발표'

'하루평균이용시간은 주중56분, 주말64분'

'OTT서비스 56.3%이용'

'이용빈도 매일(26%), 주3,4일(26%), 주5,6일(20.4%)'

'이용상황 휴식여가시간(46.8%), 잠들기 전(26.8%), 출퇴근길(17.2%)'

'이용기기 스마트폰(87.8%) 압도적'

'OTT이용중 서비스 유튜브(91.0%), 네이버TV(37.8%), 카카오TV(17.9%), 넷플릭스(14.9%), 아프리카TV(11.5%)'

#스마트폰 이용자 1/2 # 휴식,여가시간 #스마트폰 # 유튜브 시청

뉴스핌/2020.05.28/김지나 기자



13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 '1995' 고먼 / 신 도서관 5법칙



TV 시청중 세컨드 스크린 이용비율 93%

'DMC미디어 일상 속 미디어 이용 행태, 2017'

'크로스 미디어 마케팅(Tv와 인터넷 동시 사용자에 대한 공략)

'TV 시청 중 다른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

'연령대가 낮을 수록 모바일 메신저나 다른영상콘텐츠를 동시에 시청'

지디넷코리아/2017.02.10/안희정기자

세컨드 스크린

모바일 폰,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동시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인구의 증가

>



93%

미이용

동시 사용율이 낮은 인구는 1자리수의 분포도를 보임

>



7%



14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기획! 어디서든 도서관을 만날 수 있고, 만나고 싶도록 콘텐츠 방향성 설정



지식을 유통시키는 모든형태의 자료를 고려하고, 정보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접근점을 주기 위한 솔루션



10

15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부평구립도서관 콘텐츠 방향성 발전과정

#기획자 #입장 #목적 #분석



02 도서관에 관심있는 시간대는 언제인가?

도서관 카카오플러스 문자 홍보 수신율을 빅데이터로 시간대 별 분석결과 부평구립도서관 이용자들은 16:00발신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거나 참가하였음

01 대상층은 누구?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대상은 주부, 어린이, 부모로 도서관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되었음

03 어떤 매체 및 기기로 제공 및 전달 할 것인가?

세컨드스크린을 통한 크로스 미디어 마케팅을 공략 장시간 사용보다는 짧은 사용이 다수 일 것으로 예상하여 콘텐츠의 무게나 길이 제작시 화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획이 필요 함



기획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

우리 내부의 전문가를 통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설정으로 일관성있는 영상채널로 건설



16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부평구립도서관 콘텐츠 방향성 발전과정

#기획자 #입장 #목적 #분석



05 콘텐츠를 어떻게(형식, 구성)하여 전달할 것인가?

어떤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지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콘텐츠 내용의 형식(콘티)작성하여 실제로 촬영할 대본, 출연자섭외, 촬영구도, 음향까지 구체화 시키면서 진행
[1번째 콘텐츠 독서진흥 캠페인분야/책읽는 부평 올해의 대표도서 관련/예능+인터뷰]

04 어떤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단순한 흥미나 기관의 특성과 맞지않는 내용을 배제한 직접적인 목표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하위 콘텐츠 아이디어 회의 등 시행하여 6개 카테고리 도출
[독서진흥 캠페인, 책 읽기, 도서관 엔터테인먼트, 평생학습, 이미지 브랜드, 업무공유 플랫폼]



06 왜 하려고 하는가? 에 따른 방향성 검토와 플랫폼 선택

한정된 범위 인원에게 공개 가능한 강사 콘텐츠는 다중화상지원 플랫폼으로, 구립도서관 콘텐츠 제작카테고리로 보았을때 플랫폼 다수에게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오픈플랫폼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오픈플랫폼 중 점유율이 높고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을 선택하기로 함

기획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

우리 내부의 질문을 통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설정으로 일관성있는 영상채널로 건설



17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부평구립도서관 콘텐츠 방향성 발전과정

#이용자 #입장 #홍보 #분석



02 이용자들은 어떨때 유튜브를 사용하는가?

궁금한것이 생겼을때
- 초록창을 대신하는 검색수단으로 부상 중 지식습득을 할 때
-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의 콘텐츠 등 취미생활을 할 때
- 취미활동 지식공유, 대리만족, 흥미추구 등

01 이용자들은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도서관유튜브를 본다는 것 자체가 흥미거리가 많은 채널경쟁에서 쉽지 않은일이다. 도서관채널에 온 이용자가 바라는 것은 어설픈 프게 따라한 흥미 위주의 잡다한 콘텐츠가 아닌 도서관 만이 할 수 있는 책관련 콘텐츠로 풀어낸 흥미거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03 이용자들이 어떻게 유튜브를 찾아오게 할 것인가?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올리는 것 만으로는 처음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다. 기존 도서관이용자들의 온라인 유입을 위하여 SNS, 카카오톡채널, 오프라인홍보물 등을 통하여 인지도시키고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도해야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

이용자 분석을 통한 콘텐츠의 방향성 및 홍보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18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부평구립도서관 콘텐츠 방향성 발전과정

#이용자 #입장 #홍보 #분석



02-2 이용자들은 어떻게 유튜브를 사용하는가? 지식습득을 할 때

도서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식습득을 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만 할 수 있는 온라인 형 도서관콘텐츠로 제작 기존방식으로 프로그램형태로 개설하고 영상을 남겨 채널이용자에게 계속 제공한다.

02-1 이용자들은 어떻게 유튜브를 사용하는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궁금증을 가질만한 요소들을 찾아 흥미로운 콘텐츠로 구성하여 도서관에서 알고 싶어서 찾아오거나 도서관 채널에서 썸네일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점을 제공한다.



02-3 이용자들은 어떻게 유튜브를 사용하는가? 취미생활을 할 때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요즘에 도서관과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독서캠페인이나 책 읽기 콘텐츠, 도서관관련콘텐츠를 생성하여 도서관 주 이용자 층의 응답율이 좋은시간에 홍보(카카오톡 채널등)를 집중하여 여가시간을 공략

이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

이용자 분석을 통한 콘텐츠의 방향성 및 홍보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19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부평구립도서관영상채널



20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제작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제작 #프로세스 #실무

01

01 기획회의

프로그램 기획의도, 목적성, 방향성, 컨셉, 아이디어 등 제작회의(일정, 장비, 인력)포함



02

02 사전준비

사전답사, 촬영가능요소파악(환경,카메라구도, 장소의 음향반응성, 영상장비필요요소), 저작권사용여부 등



21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제작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03

03 시나리오 구성

대사 및 흐름구성, 연출구성(씬, 출연자,공간 등) 음향기획, 옛지영상 내용작성 등



04

04 촬영

자료영상, 스토리메인라인, 스토리서브라인 나레이션 녹음 촬영



22

Case

02. 움직이는 도서관 -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제작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



05

05 편집

리이브리리별 영상정리, 영상 별 이벤트 클립편집, 특수효과 및 화면구성, 자막 등 작업

※

제작 후 성과를 얻고 싶다면

업무조정 및 담당자
업무시간확보는 필수

도서관에서 영상컨텐츠를 제작하는 작업은 단지 핸드폰을 들고 돌아다니며 떠드는 브이로그가 아니라면 기획부터 편집까지 시간 인력 장비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

영상컨텐츠의 질 과 홍보여부에 따라
이용자 증가, 이용자 무관심의 여부가 갈림



23

Effect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Onfact로 연결된 도서관



24

Effect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이용자 #입장 #홍보 #분석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01 홍보를 잘 하기 위한 플랫폼에 대한 이해

플랫폼 회사의 입장에서 살펴보기

1. 플랫폼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 광고를 많이 노출시켜야 한다.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회사의 목표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이 많아져서 콘텐츠의 분야나 내용이 풍부해져서 유입인구가 많아 지기를 원한다.

02

2. 유입인구가 많아져야 한다.
 = 좋은 콘텐츠가 많아야 한다.
 &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산해 줘야한다.

좋은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노출해주고 나쁜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차단
 좋은콘텐츠 생산을 하는 크리에이터에게 더 많은 노출과 직접적 보상(광고수익공유)

Effect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이용자 #입장 #홍보 #분석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01 홍보를 잘 하기 위한 플랫폼에 대한 이해

크리에이터로서 채널이 더 많이 검색or추천되기 위해서

1. 좋은콘텐츠가 많아야 한다.
 = 내용이 건전한 많이 보는 콘텐츠

내용적 측면에서 완벽하더라도 검색 또는 주제 연관동영상으로 추천이 되지않는다면 검색어관련 좋은 콘텐츠로 인식되지 않는다. 영상을 업로드 했다면 최초 평가시 좋은 반응(시청,좋아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의 홍보채널을 이용한 집중홍보 지원을 해야한다.

02

2. 좋은평가로 이용자들에게 많이 노출되게 하려면?
 = CTR지수를 높여야 한다.
 (Click Through Ratio)

유튜브에서의 CTR지수 평가는 영상의 지속 율에 점수를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해당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흥미있고 적당한 길이의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

[재미없는 것을 자르면 재미있는 것만 남는다.]

Effect _____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이용자 #입장 #홍보 #분석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03. 홍보를 잘 하기 위한 플랫폼에 대한 이해

크리에이터로서 채널이 더 많이 검색or추천되기 위해서

3. 제목, 키워드, 썸네일은 다르게 작성하여 클릭의 빈도수를 높인다
= 해당 주제 단어, 연관동영상에 많이 시청되어 상위 콘텐츠로 등록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만든 콘텐츠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노력으로 제목, 키워드, 썸네일(콘텐츠 간판)을 공들여 만들 필요성이 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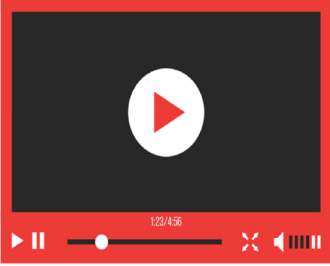
4. 채널관리에 공을 들여야 한다.

- 유튜브 알고리즘 공부하기
- 재미속에 내용을 숨기기
- 단순한 내용 질질 끌지 않기
- 간결성과 흥미로 무장
- 기획과 편집에 대한 인력,시간투자



27


Effect _____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Ontact로 연결하다



Ontact로 연결하다

부평구립도서관 영상채널


01. 독서진흥캠페인 '책 읽는 부평'



책 읽는 부평


최사서는 인터뷰가 하고 싶어서

인터뷰형 예능으로 2020년 대표도서 소개와 홍보




책 읽어주는 도서관

2020대표도서를 비롯한 등 주제도서를 ASMR형식으로 읽기



페인트 북 트레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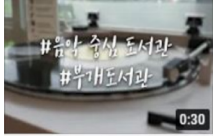
북 트레일러로 2020년 대표도서 소개



책 읽는 부평 온라인 북 콘서트

대표도서 페인트의 작가 이외영 책을 노래하는 밴드 서울문학평론가 허희와 함께하는 실시간 북 콘서트


02. 이미지 브랜딩 도서관광고



음악중심도서관 부개도서관 PPL

음악특성화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홍보하는 감성광고 제작으로 도서관을 오고 싶도록 하는 마케팅 광고 제작

유튜브 채널 이외에 지역ID 등 각종매체로 전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노출



28

Effect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Ontact로 연결하다

부평구립도서관 Ontact 프로그램 결과



책 읽는 부평 온라인 북 콘서트

대표도서 페인트의 작가 이외영 책을 노래하는 밴드 서울 문학평론가 어희와 함께하는 실시간 북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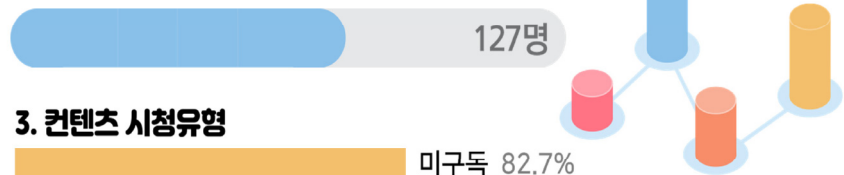
01 독서진흥캠페인 '책 읽는 부평'

1. 온라인 북 콘서트 영상조회수



2. 유튜브 구독자 증가 수

(북콘서트 사전접수 온라인 링크 문자 발송일 이후 1주일간)



3. 콘텐츠 시청유형



부평구립도서관
BUPYEONG PUBLIC LIBRARY

29

Effect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Ontact로 연결하다

부평구립도서관 Ontact 프로그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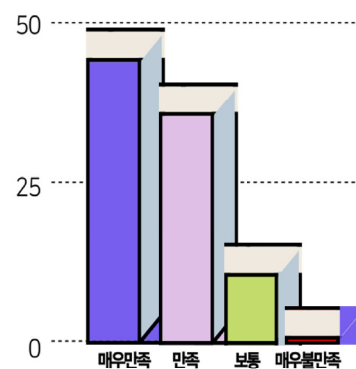


책 읽는 부평 온라인 북 콘서트

대표도서 페인트의 작가 이외영 책을 노래하는 밴드 서울 문학평론가 어희와 함께하는 실시간 북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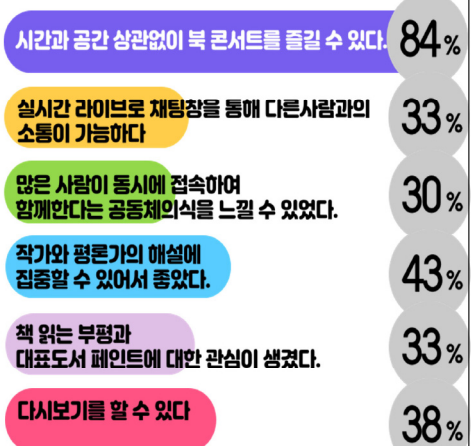
01 독서진흥캠페인 '책 읽는 부평'

4. [설문]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49%
만족 39%
보통 11%
매우불만족 1%

5. [설문] 온라인 북콘서트의 장점



부평구립도서관
BUPYEONG PUBLIC LIBRARY

30

Effect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Ontact로 연결하다

부평구립도서관 Ontact 프로그램 결과



책 읽는 부평 온라인 북콘서트

대표도서 페인트의 작가 이희영 책을 노래하는 밴드 서울 문학평론가 어희와 함께하는 실시간 북 콘서트

01 독서진흥캠페인 '책 읽는 부평'

온라인 북 콘서트 촬영 현장



어희(문학평론가) 이희영(작가)
현상필(진행자)



음악공연 (서울밴드)



책 읽는 부평 TF 댓글 모니터링



영상 및 음향 송출



북콘서트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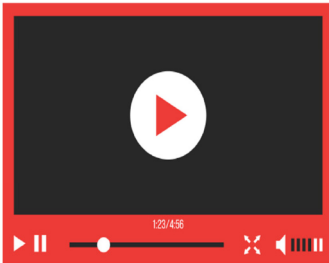
31

Effect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Ontact로 연결하다



부평구립도서관 영상채널



03 엔터테인먼트 독서와 관련된 흥미



구매처 도서관-부평기적도서관

구매처 홈즈 패러디로 리모델링 한 도서관 공간을 공간 기능 위주로 소개한 예능 프로그램



책과 만나는 영화 (예정 작)

책과 관련있는 영화를 선정하여 영상과 함께 책을 소개하는 시간

04 책 읽기 - 직,간접적 책 읽기



책 읽어주는도서관-페인트

2020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를 ASMR형식으로 읽기



책 읽어주는 도서관-발버둥치다

2020대표도서를 비롯한 동 주제도서를 ASMR형식으로 읽기



책 읽어주는 도서관-리얼마래

2020대표도서를 비롯한 동 주제도서를 ASMR형식으로 읽기



책 읽어주는 도서관-이상한 정상가족

2020대표도서를 비롯한 동 주제도서를 ASMR형식으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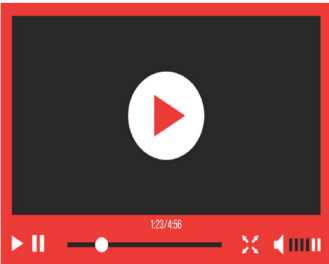
32

Effect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Ontact로 연결하다



부평구립도서관 영상채널



05 평생학습 독서문화 프로그램



그림책과 오조봇 코딩놀이

그림책을 함께 읽고 관련된 주제로 놀이 활동을 통한 메이커(코딩)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유먼라이브러리-직업편(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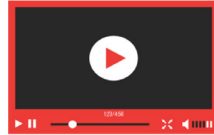
비대면 서비스로 유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다. 지역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06 Librarian Knowledge Cloud 사서 교육 지식공유



카카오톡 채널 홍보방법

신규업무관련 직원 리더러시 교육공유 채널을 통해 역량 강화 및 업무효율성 증대



블로그 운영방법 등 (예정)

앱 이외에 업무공유 가능 내용들을 계속 콘텐츠와 하이 직원역량 강화 예정



구글 미트를 통한 독서회 활용법

신규업무관련 직원 리더러시 교육공유 채널을 통해 역량 강화 및 업무효율성 증대



Effect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Ontact로 연결하다



Effect _____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Ontact로 연결하다

휴먼라이브러리 온택트 콘텐츠

직업편

학교연계

- 직업군 별 콘텐츠 촬영
- 유튜브 게시 및 홍보
- 휴먼북을 통한 진로탐색 및 교육

기능편

생활친화

- 기능별 콘텐츠 촬영 (요리, 목직, 그림, 서예 등)
- 유튜브 게시 및 홍보
- 휴먼북을 통한 생활친화적 정보제공

역사편

향토자료

- 전문가 콘텐츠 촬영 (과목모레이션 등)
- 유튜브 게시 및 홍보
- 책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카이빙 및 완성

- 휴먼북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및 교육활동을 통한 평생교육서비스 실시
- 책으로 존재 하지 않는 휴먼북의 콘텐츠를 유튜브로 콘텐츠화 하여 아카이빙
- 향토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영상 콘텐츠로 구축하여 아카이빙

온라인 휴먼라이브러리 개관 및 확장성 언택트 시대의 온택트 도서관

소통가능한 ON

도서관 채널로 전달하고
화상대화로 연결하다

Ontact

도서관 채널에서 만나고

화상대화

로 연결하다

확장가능한 ON

열린 플랫폼으로 항상 ON
지식의 접근에 제한을 풀고
지식을 아카이빙 하다

지식공유

24시간 접근가능한 열린 ON으로

아카이빙

을 통해 사람과 소통하고 기록하
고 연결하다

34

Effect _____ 03. 온라인으로 연결하다-Ontact로 연결하다

부평구립도서관의 도전

코로나 19 시대, 도서관의 Ontact는 계속 진행형
다수의 행복을 위한 독서문화서비스의 확대

Untact

코로나 19시대의
Untact라는 시대의 요구
에 대응하다

Library

도서관

Ontact

열린 연결과 소통을
통한 정보복지로 영역을
넓히다

35

Untact

Library

Ontact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평구립도서관
사서 이지현



어린이 ·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세미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비매품/무료

13020



9 791165 130657
ISBN 979-11-6513-065-7